

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478.70 (+426.24)	1116.18 (+63.79)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370 (-0.182)	1501.55 (-28.55)

반도체 기반
공급부족 조짐
업계, 생산시설 풀 가동
04

이란 “종전 의향”... 트럼프 “2~3주내 작전 종료”

중동전쟁 종지부 기대감
이란 대통령 “침략 방지 보장시 분쟁 끝낼 의지” 한층 누그러져
美 트럼프, 오전 10시 관련연설
코스피·환율 등 전일비 진정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뉴시스

중동전쟁에서 트럼프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는 게 중론이다. 잦은 번복 탓에 시간은 이란에 주어져 있다는 것. 마침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의지를 내비치면서 상황은 급변하는 분위기다.

1일 전 세계 시장은 환호했다. 다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입장은 자국 대통령 입장과는 결이 다른 양상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하는 전쟁'에 대해, 그가 자기만의 방식대로 사태를 이끌어 온 것이라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는 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연설을 예고했다. 미동부시간 1일 오후 9시(한국 2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고 캐틀라인 레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종식이 이번엔 진짜 성사될지 관심을 모은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간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의 회에서 '필수조건' 충족을 전제로 종전에 응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그는 “우리는 필수조건이 충족될 시,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보여 온 강경 및 대응·항전 태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어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못 박고 있다.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대 이란 군사작전을 2~3주 내에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크게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간만에 진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오름세도 잠중 한때 주춤했다. 다만 한국시간 오후 3시 기준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는 흐름을 보였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불허

**금융위,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역원 “GDP대비 부채비율 높아
부동산 시장-금융 절연하게 할 것”**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을 할 수 없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경우에만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역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절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올해 관리목표 ‘0% 제한’**
금융위는 은행권의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 증가율(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목표를 ‘0%’로 제한하고, 2027년도 목표에도 추가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시 정책서민 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확실적 규제에 의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 중인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여부 판단에서 배제한다.

또한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3월 수출액 사상 첫 800억 달러 돌파

산업부, 전년대비 48% 증가
무역수지 역대최대 흑자 기록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 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단일 품목으로만 300억 달러를 넘었고, 무역수지 역시 역사상 가장 높은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세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다.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출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86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 기준으로 역대 1위 기록이다. 특히 2025년 12월 기록한 69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37.4억 달러(+41.9%)를 기록해 전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로써 수출은 10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공급망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수출기업 지원과 품목·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 상승 흐름을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328.3억 달러(+151.4%)로, 단일 품목 월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일반 서버향 수요 증가가 맞물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이 전년 대비 수 배 이상 폭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靑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한 바 없어
▲정청래, 김재섭 ‘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제기’에 “법적 검토 지시”...당 차원 대응 /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李 대통령, 부산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 해명해야”
▲장동혁 “서울에서 ‘반값 전세’ 추진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것”

▲안철수 “세금 90% 내는 30% 국민은 지원금 제외...세금 낼 때만 국민”
▲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 받아...대통령 연봉 약 5배

社告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했으며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모바일,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4년 역사에 '뉴메트로 선인' 11주년을 맞이하는 메트로경제와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및 평가)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② 모집인원: 00명
③ 응시자격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2면에 계속>

metro

당정, 농어업분야 '3500억·추가 증액' 예고

전쟁 위기대응 추경

농식품부 2658억·해수부 919억
유가 급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658억원, 해양수산부에 91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 농업 분야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증액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658억 규모 추경안 편성을 농식품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급등에 따라 농업 (분야) 전반에 대한 피해가 커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조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예산 추가 증액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단 (정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증액할 때는 전체 재원의 한계도 있어서 필요하면 내부적인 선후 완급,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해수부 대상 추경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고, 어업인, 연안화물선 등 고유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큰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농지투기 근절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 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 조사 추진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18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오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조합원 자격도 정비하기로 했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1면 '이란 종전 의향...'서 계속

혁명수비대 보복의지 단호 구글 등 18개 기업 정조준

이란 가운데 미 군함들의 페르시아만 인근 집결은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3번째 항공모함 배치할 계획이다.

WSJ은 니미즈급 항공모함인 USS 조지 H.W. 부시함 및 제반 군함들이 버지니아 해군기지를 출항했다고 전했다. 미군은 앞서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제러드 R. 포드함 항모전단을 중동 지역에 보냈다. 링컨함은 현재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이며 포드함은 화재로 인한 수리를 위해 크로아티아 항구에 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종전을 위한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상전 등의 확전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내건 날짜는 4월6일이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입장은 단호하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적인 경고에도 테러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테러 작전에 연루된 주요 기관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혁명수비대는 구글과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18개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거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원부자재 부담 가중... 중기부, 대책 마련 '구슬땀'

소상공인·기업·지자체 등 현장 소통 한성숙 장관 "민생안정 추경예산 확보"

음식점 등에서 많이 쓰는 포장 비닐 값(1000장당)이 일주일 사이 6만원에서 11만7000원으로 2배 가까이 급등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다. 가뜰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울상인데 중동 전쟁으로 원부자재값이 크게 뛰며 설상가상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한성숙 장관은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분야 영향 점검회의'를, 노동석 제1차관은 여의도 기정원 사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분야 영향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실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대응 TF 3차 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한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처음에는 수출 기업에 미쳤던 영향들이 이

제 내수 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는 동시에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업계-배달앱-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의 이날 자리에는 소공연을 비롯해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배달앱 3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가격 폭등은 단순히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과 포장이 생명줄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자들에게 '마진 제로'를 넘어서 경영 중단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포장 용기 가격이 40% 넘게 치솟고 그마저도 사재기로 구하기 힘든 현 상황은 소상공인 혼자만의 힘

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포장재의 생활필수품 지정과 사재기 같은 불공정 행위 단속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에 포장재 품목 추가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탈 플라스틱 노력과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 수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쿠팡이츠서비스 정우윤 대외정책실장은 "최근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에 친환경 비닐봉지 60만장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전국 집값 상승

건정연 "시장 심리 회복되는 양상"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까지 전국이 모두 올랐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전국·수도권·지방·서울 모두 상승했다. 특히 작년 10·15대책에 따라 서울 등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전년 대비 월평균 상승률은 서울이 1.0%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6%, 0.1%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0.3%다.

임대차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아파트 전월세통합지수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이 0.6% 올랐고,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4%, 0.2%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3% 올랐다.

거래는 전국적으로 다소 줄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10.1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전월 대비 11월 -12.8%, 12월 -0.3%, 올해 1월 -0.2%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작년 10월에는 전월 대비 62.5% 증가한 이후 11월에는 60% 감소하며 단기 조정을 보였지만 12월과 2026년 1월 각각 10%, 22% 증가하는 등 거래량이 재차 회복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적으로

는 거래 위축 효과가 나타났지만 시장 적응 과정을 거치며 거래가 점진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건정연은 "국토연구원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작년 12월 소폭 하락 이후 올해 1월 상승 전환하며 전반적인 시장 심리가 회복되는 양상"이라며 "2분기 주택시장은 정책 영향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거래 및 가격은 보합 내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社告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① 일시 : 2026년 5월 13일(수) 10시 ~ 16시 40분

② 장소 : 추후 통지

③ 내용 :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 기사를 작성하여 제출

■ 1차 실무면접

①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② 일자 :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① 대상 :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

종전 기대에 금융시장 안도 랠리... 원화값 치솟고 금리 뚝

코스피 8%대 급등, 사이드카 발동
뉴욕·아시아 증시 일제히 반등
기관 매수세에 반도체주 주주
WGBI 편입에 채권시장 강세
유가·협상 불확실성은 여전



= 코스피는 전 거래일(5052.46)보다 426.24포인트(8.44%) 오른 5478.70에 마감한 1일 서울
종교 하나은행 본점 모니터에 지수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란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일 오후(한국 시간 2
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
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환호했다. 31일
(현지시간)미국 나스닥은 3.83% 급등하
고, 폭등하던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돌
아섰다. 1일 코스피도 8% 넘게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501원대로 내렸다. 아
시아 증시도 일제히 급등했다. 종전 협
상 타결까지는 양측이 남아 있고, 호
르무즈 해협 통항과 미국과 나토의 관계
재설정 등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최
악 상황은 넘긴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환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8.44% 치솟은 5478.70에
마감했다. 오전 9시 7분에는 코스피시장
에 프로그램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시
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18일 이후 14일 만이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완
화하는 장치인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모
두 11차례 발동됐으며 이 중 매도 사이드
카가 6회, 매수 사이드카가 5회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업종 전반이 급등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3.4% 급등하며
18만원(18만9600원) 선을 회복했다. SK
하이닉스는 전날 종가보다 10.66% 오른
89만3000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4조원 넘게
사들이며 시장을 이끌었다. 10거래일 연
속 팔자에 나선 외국인은 6000억원 가량
순매도했지만, 강도는 약해졌다.

이날 반등은 미국·이란 전쟁이 조기 종
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글
로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다
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
고, 마수드 페제שי키안 이란 대통령도 종
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종전 기대에 먼저 반응한 곳은 뉴욕증
시다. 31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
(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는 2.49% 급등한 4만6341.51에 마감했
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2.91%, 3.
83% 급등했다. 웰스얼라이언스의 에릭
디트 사장은 “전쟁 종식을 향한 어떤 조
치든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며 “다만 아직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 석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압박을 받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환호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5.24% 급등했고, 대만
가권 지수는 4.58% 올랐다. 중국 상해종합

지수와 홍콩 항셱지수도 강세를 보였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유가도 한숨을
둘렀다. 31일(현지시간)서부텍사스산원유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46% 내린
배럴당 101.38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1530.1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
했던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내렸다.
이날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는 전장보다 28.8원 내린

1501.3원이다.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
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된 이날 국
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가격 상승)
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보다 18.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370%에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3.689%로 19.0bp 내렸다.

◆안도 랠리 펼칠까

시장 전문가들은 종전이 현실화하면
증시가 안정을 되찾겠지만, 잦은 변동성
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4월에
도 전쟁 여진 속 미국 사모대출 시장 노
이즈,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정점 후 하
락) 논란 등으로 제약적인 환경에 놓일
수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연초 폭등
 랠리 부담을 대부분 털어낸 가운데 밸류
에이션(평가가치)상 진입 이점도 재차
 높아지며 주가 복원력이 생성되고 있다
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증시

는 지정학 변수가 발생하는 시기에 펀더멘
탈을 크게 하회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
투자자에게는 단기 지정학 이벤트가 큰 변
수가 아닐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이 짧은 투
자자에게는 공포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고유가
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지라면서 “첫 한 달 기준 이란 전쟁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2025년 4
월 미국 해방일보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박형중 우
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상황에서
는 환율 상단이 1600원까지도 열려 있다
고 봐야 한다”고 했다. 중동발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 주요 중앙은
행들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도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
고 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결승선 보인다” 낙관 이란 “장기전 불사” 맞대응

루비오, 직접 회담 가능성까지 언급
아라그치 “최소 6개월 전쟁 대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동 전쟁의 조기
종결을 언급한 반면, 이란 외무장관은 장
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란 장관의 경우, 협상 의지를 드러낸 자
국 대통령과 입장이 배치되는 모습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
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내일은 아니더라도 다가오고 있
다. 결승선이 보인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과 미국 간 입장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이 “언젠가
직접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
과 만난 자리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
며 종전 시점을 ‘2~3주 내’로 거론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 반면 루비오 장관은 직접 대화 가능

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발언은 루비오의 ‘표
면적’ 전망에서 크게 벗어난다.

31일 CNN방송에 따르면 아바스 아
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알자지라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최소 6개월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자국 방어와
관련해 어떠한 기한도 정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적
들이 어떠한 종전 일정을 설정하든 상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고 있지 않
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과 관
계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
다. 그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끝내려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선행
돼야 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
고 답했다. /김연세 기자 kys@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BNK 가을야구 예금·적금

BNK가을야구 예금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원단위) (1인당 가입한도 합산 5억원이하)

[가입대상] 재민업종(단, 금융기관 및 별도 협약 시금고는 제외)

[가입기간] 12개월

[적용금리] 최저 연 2.40% ~ 최고 연 3.20%
(2026.03.27 현재, 세전, 최고이율은 기본이율 2.40%+우대이율 최대 0.80%p 모두 적용 시)

[우대이율항목] ① 승리기원 우대이율 0.20%p (연가배치 시 모든 고객 적용)
② 승리기원 우대이율 최대 0.20%p (연가배치 시 70%이상 0.10%p, 정규시즌 80%이상 0.20%p)
③ 가배치적 우대이율 최대 0.30%p

[예금] 일출금통장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인 환수가 가입기간중 6회 이상 : 0.15%p
가입기간 중 신용체크카드 누적 이용금액이 500만원 이상 : 0.15%p

[제한 외] 일출금통장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인 환수가 가입기간중 6회 이상 : 0.15%p
가입기간 중 신용체크카드 누적 이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 0.15%p
④ 반가운손님 우대(가입일 전월 기준 1년 이내 당행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0%p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특판 기간] 2026.03.27 ~ 2026.05.31(단, 한도 5천원 소진 시 조기종료)

[예상수취이자액]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적용금리 3.20%, 총 이자(세전) 320,000원
※ 가입액, 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BNK가을야구 적금

[가입금액] 1만원 ~ 1백만원(만단위)

[가입대상] 실령의 개인

[가입기간] 12개월

[적용금리] 최저 연 2.40% ~ 최고 연 3.40%
(2026.03.27 현재, 세전, 최고이율은 기본이율 2.40%+우대이율 최대 1.00%p 모두 적용 시)

[우대이율항목] ① 승리기원 우대 0.20%p (연가배치 시 모든 고객 적용)
② 승리기원 우대 0.20%p (연가배치 시 70%이상 0.10%p, 정규시즌 80%이상 0.20%p)
③ 가배치적 우대이율 최대 0.30%p

④ BNK가을야구 예금 통사기 우대 0.20%p(통일자 가입 시 적용)
⑤ 가배치적 우대 최대 0.30%p
- 일출금통장 월평균 100만원 이상인 환수가 가입기간중 6회 이상 : 0.15%p
- 가입기간 중 신용체크카드 누적 이용금액이 500만원 이상 : 0.15%p
⑥ 반가운손님 우대(가입일 전월 기준 1년 이내 당행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0%p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특판 기간] 2026.03.27 ~ 2026.05.31(단, 한도 5천원 소진 시 조기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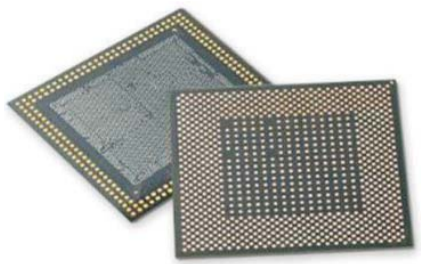
[예상수취이자액] 월 적립액 50만원 기준, 적용금리 3.40%, 총 이자(세전) 115,500원
※ 적립액, 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AI 수요확산에 기판 ‘쇼티지’ 조짐... 가동률·가격 동반 상승

삼성전기, 전년비 생산시설 5%↑
기존 생산라인 효율화... 단기 개선
일부 FC-BGA 제품군 가격 인상

LG이노텍, 생산시설 5.2% 늘어
중장기적 생산능력 2배 확대 목표



삼성전기 고성능 반도체 기판 ‘플립 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 삼성전기

인공지능(AI) 수요 확산으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장에 ‘쇼티지(공급부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상승하며 사실상 풀가동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를 중심으로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시설은 각각 70%, 8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고성능 반도체 기판인 AI 서버·데이터센터용 FC-BGA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최근 일부 FC-BGA 제품군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서버 확산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생산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성능 CPU·GPU를 사용할수록 보다 정밀한 기판이 요구되지만 FC-BGA는 제조 난도가 높은 제품으로 단기간 내 생산 확대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사는 최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설비 확충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서버·데이터센터용 FC-BGA 수요가 생산능력보다 50% 이상 많다”며 “보완 투자도 하고 일부 공장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지난 23일 주주총회에서 “서버에 들어가는 FC-BGA 등 반도체 기판은 내년 하반기에 풀가동이 예상된다”며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2배 정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양사의 대응 전략에는 차이도 엿보인다. 삼성전기는 기존 생산라인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며 단기 시적 개선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AI 기업들의 수요를 적기에 대응해 시장 공백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이노텍은 단기적인 물량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생산능력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생산능력을 현재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2028년 본격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솔루션 형태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스마트폰과 PC용 제품 비중이 높지만 향후 서버용 기판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2027년부터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수요 확대로 기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품사 중심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단기적 현상을 넘어 일정 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USTR, ‘韓 플랫폼 규제’ 무역장벽 지목

(미국 무역대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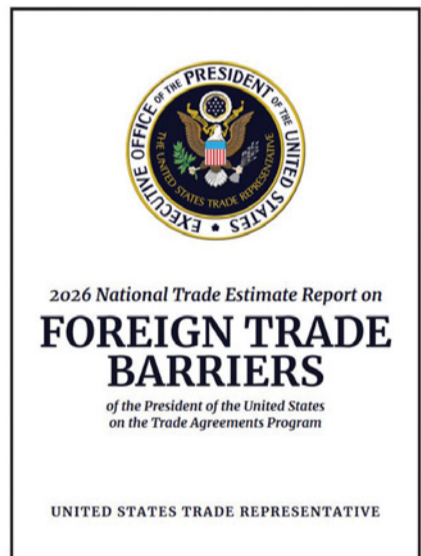
관세회피 방지협력 협정 부재 지적
노동법 집행 관련해서도 우려 표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공정 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방안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한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전 규제와 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2026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했다. /NTE 표지 캡처

무 조항을 부과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업계와 소통을 개선할 것”을 지

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USTR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포함된 내용이다. ‘경쟁 정책’이었던 소제목이 올해는 ‘반독점 관행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회피 방지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이어 “협정 부재는 한미간 합법적 무역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을 경유해 환적되는 제3국 제조업체의 고위험 화물을 양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한국의 노동법 집행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 근절 등에 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롯데물산, 롯데칠성음료 양평동 부지 인수

10년 만에 부동산 개발사업 재시동
약 6400평 규모 2805억에 매입

롯데물산이 서울 양평동 부지를 사들이며 약 10년 만에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건다.

잠실 랜드마크 개발 이후 간접 투자와 자산관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온 롯데물산이 직접 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롯데물산은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칠성음료 부지(양평동5가 119번지 외 17필지 일원)를 2805억원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롯데물산이 매입한 부지는 2만 1217㎡(약 6400평) 규모로 롯데칠성음료가 1965년 매입 후 물류센터, 차량정비 기지로 사용해왔다.

입지 경쟁력은 뛰어나다.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인 데다 올림픽대로와 맞닿아 있어서 서울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여의도 업무지구와 가깝고, 인근에 선유도공원과 한강공원, 안양천 산책로가 형성돼



롯데물산이 매입한 롯데칠성음료 양평동5가 119 일원 항공 사진(빨간색). /롯데물산

있어 주거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목동 생활권과도 인접해 학원, 병원, 상업 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개발 여지는 충분하다. 해당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20년 선유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200%가 적용되는 만큼, 통상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는 구역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KDDX, 사업비·영업비밀 논란에 다시 ‘흔들’

(한국형 차기 구축함)

방사청, 가처분 여파 속 설명회 진행

약 2년간 표류했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재개 국면에서도 다시 흔들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설명회를 예정대로 열며 절차를 이어갔지만, 사업비 갈등과 영업비밀 논란이 겹치며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31일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설명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제안요청서(RFP)내용을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 여파로 민감한 공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안서 작성 방식 등 실무 질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기본설계 자료

공유 문제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부한 자료에 최신 공법과 신기술, 제품 사양, 가격 등 입찰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자료 공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본설계 195개 항목 가운데 12개 항목은 경쟁사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방사청은 자료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본설계 결과물의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방사청에 있고, 특정 업체의 비밀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방사청은 가처분 소송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비를 둘러싼 문제도 충분한 검토 없이 9000억원 선에서 일단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설계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24년 선도함 사업비는 8820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이후 물가와 환율, 인건비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현재 9000억원 선의 사업비에는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사청이 지난 2년간 사업 지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속도보다 과정 관리에 더 무게를 뒀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와 충분한 조율 없이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영업비밀 논란과 사업비 문제를 동시에 키웠다는 것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사전 소통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방사청의 미숙한 대응을 보여준다”며 “물가와 환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업체 요구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탈법 편법적 행위·용도의 유용 여부 점검

>> 1면 ‘은행 가계대출...’서 계속

해당 조치는 전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 상환 계획 수립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온투업 LTV규제로 ‘풍선효과’ 차단**
이 밖에도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 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 127건, 가계대출 약정위반 2982건이 적법해 대출회수 등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의 유용 여부도 금융회사, 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의 유용 행위 적발 시 제한되는 신규대출 범위를 금융회

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힌다.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및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전(全)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연장 제한, 대출 규제 위반 행위 점검등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한-인니, '특별 전략 동반자'로...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

핵심광물·AI·에너지·금융·해양 등 양해각서 포함 16건 협력 문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또 중동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년간 각자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끌고 밀어주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라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광산을 유지하는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자동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면서 "성공적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경제협력 2.0에 관한 양해각서(개정)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협력 성과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 더 많이 만들어 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데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본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 광물을 비롯한 자원·에너지, 해양 분야

등 총 16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이 중 양해각서(MOU)는 10건, 협력 문건은 6건이다.

일단 양국은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를 새로 체결했다. 그리고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를 체결해 2023년 7월 이후 지연되고 있는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핵심광물, AI 정책 개발, AI 기본으로, 청정에너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지식재산 보호, 금융 등 분야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질조사와 탐사, 개발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환경협력, 산림분야 핵심 프로그램 협력, 산불 관리 및 산불피해지 복원 협력, 개발협력, 데이터 및 통계 협력 등에 관한 문건 6건이 체결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김영환 컷오프' 제동 후폭풍... 국민의힘 공천 혼란 확산

법원,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인용 대구·충북 경선 재 실시 가능성 거론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효력 정지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다른 지역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및 공관위원들의 사퇴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과 법률자문위원인 규곡택 의원을 제외하고 공관위원 전원을 새로 꾸릴 방침이다.

현재 2기 공관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공석인 경기·호남지역 후보 물색,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사진 왼쪽)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효력 정지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오른쪽) 국회부의장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다른 지역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그리고 컷오프 관련 잡음이 나는 대구시장·충북지사 공천이다.

충북지사의 경우 김영환 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 정지가 인용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후보 등록을 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

부지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바로 후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김수민 내정설'이 퍼지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럴 경우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인 경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김 지사 컷오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대구시장 공천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부의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 공관위는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컷오프했다. 만일 컷오프의 사유 및 절차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주 부의장도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등 6인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첫 경선 토론회도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과 이 위원장이 합류하면 8인 경선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결국 경선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2기 공관위가 대구·충북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천 잡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어제 김영환 지사(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됐고, 저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전 위원장은 당에 재심 신청을 한 것 아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만 안 했을 뿐이고, 제가 인용이 되면 이전 위원장이 내면 곧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당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고, 인용이 되면 두 사람 모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강원 찾은 정청래, 우상호 지원사격

"1호 공천자... 대통령이 보낸 사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강원도를 찾아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라며 6·3 지방선거 '1호 단수공천'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는 강원도의 힘을 믿고 강원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도를 위해 당에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며 "강원발전특별위원회인데 당대표 특별 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라고 했다. 이어 "우 후보가 강원도에서 뛰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강원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뒀든다 해드림 센터' 센터장을 또 제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저는 우 후보와 20~30년을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땀 흘려왔다"며 "우상호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1일 강원 철원군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다목적구장에서 열린 철원을 승격 제95주년 기념 '철원읍민 화합대축전'에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에 박덕흠 임명

재보선 공관위는 별도로 구성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할 새로운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1일 임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으로서 당내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전날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 대표는 "가처분(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지역,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지만, 그것은 새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은 완전히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보선 공관위에 대해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체처럼 통상 관례로 공관위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투자자 이탈에 거래량 절반 ‘뚝’... 코인거래소, 전망 ‘암울’

〈전월대비 일일거래량〉

가상자산거래소 ‘보릿고개’

올해 매출 하락폭 전년보다 클 듯 거래소 5곳 일일거래량 18억 달러 시총 역대최대 작년 10월의 20% “법인거래 허용·규제완화 등 수익성·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올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거래소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이탈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입법이 하반기로 밀려나면서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 업비트(두나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직전연도 대비 27.9% 감소한 70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수수료 수익도 함께 줄어든 영향이다.

같은기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소 이익도 줄어 들고 있다.

/뉴시스

율 2위 빙썸은 7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및 총 매출액은 2024년 대비 늘었지만, 이자비용을 비롯해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지난해 말 가상자산 가격에 따른 처분손실이 반영되면서 총 당기순이익은 줄었다.

점유율 3위 코인원의 경우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3억2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3년간 이어진 적자에서 벗어났다. 점유율 4위 코빗과 5위 고팍스는 아직까지 별도의 공시가 없지만, 다년간 적자를 지속했던 만큼 지난해에도 적자를 지속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순이익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던 2024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가운데, 올해는 매출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전반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량도 크게 줄어섰다.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17억 72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초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며,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약 20% 수준

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매출의 약 97%를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국내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부재로 레버리지 거래를 비롯한 파생상품 취급도 제한적이다. 업권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파생상품인 ‘코인 대여 서비스’도 지난해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속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도 거래소들에는 고심거리다. 해외 거래소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거래로 국내 거래소와 비교해 가격 안정성이 높으며, 파생상품 취급도 국내 거래소보다 자유롭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100만원 이상 이전(출고)된 자금 규모는 168조9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만 90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같은해 상반기 대비 유출액이 14%나 늘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와 여당을 중심으

로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현실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입법 논의 중에 있지만, 당초 지난해 입법을 목표로 했던 해당 법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일정이 늦춰졌다. 정부와 여당 간에 규제 방향성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동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며 논의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다.

더군다나 최근 논의중인 내용에는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입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수입 감소 전망이 나오는데, 매출을 전적으로 수수료에 의존하는 거래소의 영업환경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거래 허용을 비롯한 수익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입법 논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업권에서도 좀처럼 전략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금융·통신·수사 ‘원팀’... 보이스피싱 ‘차단’

금융위,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의심거래 정보공유 기관·범위 확대 계좌·거래내역 등 공유정보 구체화

보이스피싱 대응에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나선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범위를 대폭 넓히고,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금융회사·수사기관·통신사에 더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 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까지 포함했다.

공유 정보도 구체화한다.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는 물론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까지 폭넓게 공유한다.

아울러 의심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도 도입한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 설비와 전문인력,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이 기관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통신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한 뒤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추적하며, 통신사는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기존 본인확인조치 규정은 폐지한다. 신고포상금 규정은 별도로 정비해 체계를 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 등 분야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지급정지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분상제 적용 ‘이촌 르엘’ 9일부터 청약

총 750세대 규모... 88세대 일반분양

전통 부촌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가 청약시장에 나온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이촌동에서 리모델링으로는 첫 일반분양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촌동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이촌 르엘’이 오는 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단지는 이촌동 301-160 일원에 지상 최고 27층, 9개 동, 총 75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88세대를 일

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100㎡ 22세대 ▲106㎡ 24세대 ▲117㎡ 13세대 ▲118㎡ 12세대 ▲122㎡ 17세대 등이다. 전 타입이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교통 여건은 서울 도심과 강남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단지 인근의 이촌역을 통해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 이동도 수월하다. 이촌 한강공원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는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적

용돼 한강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25m 길이 3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이 들어선다. 입주민 전용 영화관인 ‘프라이빗 시네마’와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닝 카페도 마련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촌 르엘은 강북권 첫 르엘 단지”라며 “강남에서 축적된 브랜드 노하우와 한강변이라는 탁월한 입지가 결합해 용산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229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는 낮지만 전 평형이 중대형이라 절대적인 분양가 자체는 높은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험, 생산·투자 뒷받침 ‘생산적 금융’”

김헌수 보험연구원장, 취임 간담회 “성숙기 한국 보험산업, 성장 가능”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을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해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을 단순히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생산 기반을 떠받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성숙시장에 접어든 한국 보험산업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 고령화와 돌봄, 사이버와 AI 등 이전에 없던 위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의 역할 역시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그 성장은 외형 확대가 아니라 건전성과 수익성, 성장성의 균형을 회복하는 ‘건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올해 보험산업이 저성장,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소비자보호 과제, 기술혁신, 제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 방향을 경영 대응, 정책 대응, 소비자보호의 3개 축으로 구성했다. 단기 현안과 급변하는 정책 이슈에도 수시 과제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대응 분야에선 불확실한 금리 환경과 자본 부담에 맞춘 ▲자산·부채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관리(ALM) ▲금융재보험 활용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영향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재점검하고 자본관리와 수익성 방어에 도움이 되는 실증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대응 분야에서는 ▲AI 기반 보험영업 제도와 활용 사례 ▲사이버 리스크 관리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과징금 제도 개선 ▲보험산업 전환 금융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험회사의 역할 ▲정년연장이 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전환, 자본시장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보험산업이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구현할 제도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보험산업이 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건전성과 혁신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HS효성, 전문경영인 체제 돌입 기술·품질 기반 거버넌스 재편

비오너가 출신 김규영 회장 취임
소유·경영 균형... 기업가치 제고
재계 “韓 경영방식 새 지평 열어”



김 회장은 지난 1972년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에 입사한 이후 50년 이상 한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온 대표적인 ‘효성맨’이자 엔지니어 출신 경영인이다. 한양대학교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한 후 생산 현장에서 커리어를 시작, 울산-연양-안양 등 효성 주요 사업장의 공장장을 역임하며 공정 혁신과 품질 경쟁력 제고를 이끌었다.

김 회장은 효성에서 섬유 PG CTO, 효성 기술원장 등을 맡아 그룹의 기술 전략을 총괄하며 스판텍스와 타이어 코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제품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중국 총괄 사장을 역임하며 해외 생산 및 판매 조직을 직접 이끈 글로벌 사업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은 화학 소재 경험이 많은 경영자이자 원칙주의자로도 유명하다. 특유의 간간한 성격으로 정도경영을 중시하던 김 조석래 명예회장의 신임을

받아 여러 핵심 보직에 중용되기도 했다. 2017년부터는 ㈜효성 대표이사를 맡아 약 8년간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과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이끌었다. 2022년 부회장 승진 후에는 그룹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경영 체질 개선을 주도해왔다.

아울러 HS효성은 LG화학 기술원장 출신인 노기수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안성훈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김 회장, 노 대표 선임은 김 조석래 명예회장의 기술 DNA와 함께 조 부회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과 품질을 중시하는 HS효성 그룹의 이념을 반영하고 기술과 가치경영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효성 60년 역사상 최초의 비(非)오너 출신 회장 선임은 재계에서도 드문 케이스”라며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 한국 경영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NASSCO 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美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대미사업 실질적 성과 창출 전망

삼성중공업이 미국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설계사업을 시작으로 마스가(MASGA) 참여를 본격화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NASSCO), 디섹(DSEC)과 함께 NGLS 프로젝트의 개념 설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NGLS는 미 해군의 핵심 전략인 분산해양작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군수지원함이다. 높은 기동성과 임무 맞춤형 운용 역량을 갖춘 소형 함정으로, 향후 13척 이상 건조가 예상되는 전략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은 함정 성능의 기반이 되는 고효율 선형설계 분야를 맡는다. 대전 대덕연구센터에 보유한 길이 400m 규모의 대형 수조를

기반으로 축적한 선형 설계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미 해군이 요구하는 기동성, 보급능력, 안정성을 충족하는 선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 나스코 조선소의 현지 건조과정에서도 기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대미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미국 비거(Vigor) 조선소와 함께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입찰 참여도 준비 중이다. 선박 건조 기술과 3X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내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NGLS 사업을 계기로 나스코 조선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미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울산산단 재편 논의 지지부진... 장기화 우려

석화업계 구조조정

업체 감산규모·통합방식 견해차
“버티는 국면... 해법 찾기 어려워”

울산 석유화학단지 재편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다. 공급 과잉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감축 대상 설비와 부담 분담 방식을 둘러싼 기업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엮이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에쓰오일의 사한 프로젝트를 둘러싼 입장 차까지 맞물리며 논의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산단 내 주요 업체들 사이에서는 나프타분해시설(NC) 설비 감축 방식을 두고 견해차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는 각각 연간 66만톤, 90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에쓰오일은 연간 18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에쓰오일이 추진 중인 9조원 규모

의 사한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연간 180만톤의 생산능력이 추가된다. 사한 프로젝트는 원유 및 부산물을 곧바로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TC2C 공정과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초대형 스틱 크래커를 앞세운 핵심 투자지만 재편 논의에서는 신규 공급 확대라는 점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꼽힌다. 에쓰오일은 해당 설비를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는 기존 설비만 줄이는 방식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논의가 어려운 배경에는 울산의 설비 구조도 자리하고 있다. 기업마다 사실상 NCC를 하나씩 보유한 구조여서 설비 감축이 사실상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업체가 나눠 감산하는 방식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에쓰오일은 신규 고효율 설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자발적 감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

고 다른 업체들 역시 사업 비중을 고려할 때 먼저 생산 축소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수의 LG화학과 GS칼텍스의 재편 협의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례처럼 내부 판단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새로운 합작 구조를 짜야 하는 데다 외국계 주주 동의도 필요해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재편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부담 회피는 없다는 원칙 아래 속도를 주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업 구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시한을 앞당기는 방식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은 어느 한 회사가 먼저 내가 접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판이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라며 “지금처럼 각사가 버티는 국면에서는 공동해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英 재개발 단지에 히트펌프 솔루션 공급

모노 R290·모노 R32 등 대상

삼성전자가 영국 콘월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주거단지 재개발 프로젝트에 고효율 히트펌프 공조 솔루션을 대량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잉글랜드 남서부의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피서지로 유명한 콘월 지역에서 추진

되며, 과거 광산으로 활용되던 약 61만평 규모의 유헴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고효율 히트펌프 방식 기반으로 난방과 급탕을 제공하는 가정용 EHS 제품을 대거 공급한다. 공급되는 제품 모델은 자연 냉매인 프로판을 사용하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모노 R290’과 R410

대비 지구온난화지수가 약 68%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모노 R32’이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 다양한 가전제품도 공급한다.

삼성전자 DA 사업부 임성택 부사장은 “통합 에너지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고효율 히트펌프 솔루션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효성중, 국내최초 드라이 에어 차단기 개발

145킬로볼트... 육불화황 제로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육불화황 가스 대신 드라이 에어를 적용한 145킬로볼트(kV) 차단기를 개발하고 양산에 나선다. 온실가스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해 친환경 전력기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려는 전략이다.

1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육불화황 대신 질소와 산소로 구성된 드라이 에어를 적용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높였다. 여기에 진공차단 기술을 결합해 절연 성능과 전류 차단 성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 두 기술을 145kV 차단기에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국제 공인 시험소 협의회(STL)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다.

글로벌 시장 환경도 친환경 차단기 확산에 힘을 실어 준다. 유럽연합(EU)은 육불화황을 포함한 불화온실가스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대체 기술 도입이 빨라지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육불화황 제로 차단기 제품군을 고전압 영역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전력 인프라 전환 수요에 대응해 차세대 전력기기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화큐셀, 美 ‘큐셀 뉴 홈즈’ 신규 사업

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 제공

한화솔루션큐셀부문(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신축 주택에 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사업 브랜드 ‘큐셀 뉴 홈즈(Qcells New Homes·사진)’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큐셀 뉴 홈즈는 주택 건설 초기 단계부터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합 반영한 에너지 솔루션을 주택 건설사에 제공하는 신규 사업이다. 완공된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과 달리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설비를 내재화해 비용 효율성과 시공 편의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설계와 인허가, 기자재 조달, 설치 지원, 유지보



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뉴 홈즈는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이 활발한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먼저 출범한다.

한화큐셀은 미국 내 태양광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브랜드 뉴 홈즈와 주택용 태양광 금융사업 엔핀(EnFin)을 연계해 재생에너지 사업 시너지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상속세 부담’ 매물나온 청호나이스… 노조 “밀실매각 반대”

가전통신노조 등 본사에서 기자회견
“회사, 노조 대화 조속히 나서야”
매각절차 참여·고용승계 보장 요구
“구조조정용 매각은 용납 못해”
칼라일 실사 진행… 국제정 조사도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청호나이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로 매각 진행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6월 창업주인 정희철 회장이 별세한 이후 미망인 이경은 이화여대의대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해 회사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정 회장 사후 3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청호나이스 인수에는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칼라일(Carlyle)이 적극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일 중소기업계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과 청호나이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청호나이스 본사에서 밀실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PEF에 매각될 경우 다른 M&A 선례를 감안할 때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을 동반할 것이라며 매각 절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청호나이스 본사에서 열린 ‘청호나이스 밀실매각 반대’ 기자회견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가전통신노조

가전통신노조 이현철 위원장은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매각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청호나이스에는 콜센터 상담원, 방문점검직(플레너), 영업관리직(플레너지사장·팀장), 그리고 지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 소속 설치수리직(엔지니어) 등 약 60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노조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청호나이스지부 김주태 지부장은 “매각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매각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노동조합의 매각 절차 참여 보장 ▲고용 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포함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구조조정용 매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는 고인이 된 정 회장이 93년 창업해 2024년 기준으로 4730억원으로 ‘매출 5000억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등 정수기, 비데 등 환경가전업체의 대표기업 중 하나다. 주력인 청호나이스를 포함한 청호그룹은 12개 계열사에 협력사만 400여 곳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제품 수출 국가는 전세계 70개국에 육박한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청호그룹의 총 매출은 7000억원대에 이른다.

청호나이스 지분은 고 정회동 회장이 75.1%로 대주주이고, 계열사인 마이코

로필터가 12.99%로 2대 주주다. 정 회장의 동생인 정희철 부회장도 8.13% 지분을 갖고 있다.

정수기 필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마이크로필터는 정 회장이 80%, 이경은 현 회장이 20%의 지분으로 부부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칼라일은 배타적 협상권을 갖고 청호나이스 인수를 위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 매각가는 청호나이스를 포함한 계열사까지 약 8000억~9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장에선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제정 조사4국은 최근 청호나이스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기아

상반기 대규모 채용 청년 일자리·신사업 강화

기아가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미래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채용에 나선다.

기아는 청년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신사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ICT ▲제조솔루션 ▲PBV ▲재경 ▲글로벌사업 등 34개 분야에서 상반기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채용 공고는 모두 181건이다.

신입 채용은 오는 13일까지, 전환형 인턴은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경력 채용은 15일부터 27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양성운 기자

LS머트리얼즈

탈황모듈 공급 본격화 AI전력시장 공략 확대

LS머트리얼즈는 자회사 LS알스코가 최근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기업에 탈황장치 부품 공급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북미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연료전지 기반 분산형 전력을 공급해 온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급하는 탈황장치 모듈은 연료 내 황 성분을 제거해 연료전지의 수명과 효율을 유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LS알스코는 해당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해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매출 성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탈황장치 모듈 매출은 올해 150억원 이상이 예상되며 이는 LS머트리얼즈의 2025년 연결 매출의 약 1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울트라캐피터(UltraCap)와 함께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KG그룹, 케이카 품고 모빌리티 밸류체인 강화

캐터스PE와 공동 투자 방식 추진
KG모빌리티·케이카·KG ICT 연계
제조부터 유통·금융·서비스까지 강화

KG그룹이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인 KCar(케이카)를 인수하며, 자동차 제조부터 유통, IT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KG그룹은 케이카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캐터스프라이빗에쿼티(PE)와의 공동 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는 단순 사업 확장이 아닌 KG그룹의 모빌리티 전략을 완성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KG그룹은 ▲자동차 제조(KG모빌리티) ▲자동차 유통(K Car) ▲IT 플랫폼(KG ICT)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모빌리티 사업 구조를 확보하게 됐다. 차량의 생산부터 유통, 금융·서비스에 이르는 자동차 산업 전 과정(Value Chain)을 직접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시장 대응력과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케이카는 전국 48개 직영점을 기반으로 한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다. 온라인 판매 시스템인 ‘내차사기 흡서비스’를 비롯해 차량 매매·판매, 렌터카, 자동차 금융까지 아우르는 탄탄한 시장 점유율과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2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KG그룹은 케이카 인수로 KG모빌리티의 차량 생산 역량과 글로벌 판매·서비스 네트워크, 케이카의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결합해 차량의 구매·유통·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KG모빌리티의 해외 네트워크와 KG스틸의 글로벌 사업 기반을 활용해 중고차 유통·모빌리티 서비스의 해외 확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는 등 신규 사업 기회 창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KG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를 넘어 유통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일상은 더 정숙하게, 아웃도어는 더 강인하게”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 효율 앞세워
도심주행·장거리 이동 모두 만족
라이프스타일 SUV 가치 제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비주류였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본래 거친 비포장도로를 주파하고 자연을 누비기 위해 탄생했다. 산과 바다 등 도심을 벗어나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SUV는 이동수단을 넘어 레저 라이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자리해 왔다. 최근에는 SUV가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략 모델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국내 SUV 시장에서 르노코리아의 중형 그랑 콜레오스는 SUV의 강인함과 세련된 도심 주행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는 지난해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3만 5352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체 순위 6위를 기록했다. 특히 그랑 콜레오스는 출시와 함께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며 꾸준히 매월 약 1500대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인기는 그랑 콜레오스의 연료 효율성과 편의성 등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랑 콜레오스는 15.7km/L의 연비

를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에도 도심 출퇴근은 물론 목적이 없는 장거리 여행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한다. 듀얼 모터 시스템과 1.64kWh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E-Tech 시스템’을 통해 도심 주행의 최대 75%를 전기 모드로 소화하는 뛰어난 효율성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2820mm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넓은 실내 공간은 머무름의 가치를 표현했다. 그랑 콜레오스의 문을 여는 순간 펼쳐지는 쾌적하고 개성 있는 공간은 우리가족만의 안락한 베이스캠프로 완성된다.

그랑 콜레오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운 휴식으로 이어진다. 3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openR 파



르노코리아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노라마 스크린은 조용한 공간 속에서 OTT 콘텐츠 감상은 물론 음악, 게임, 노래방까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정숙성을 구현했다. 야성과 세련된 도심의 일상,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은 결국 그랑 콜레오스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AI성능 높은 ‘갤럭시 북6’ 노트북 라인업 완성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성능을 강화한 노트북 ‘갤럭시 북6’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은 35.6cm(14형)와 40.6cm(16형), 2가지 사이즈로 출시된다. 색상은 그레이·실버로, 가격은 세부 사양에 따라 160만원부터 251만원까지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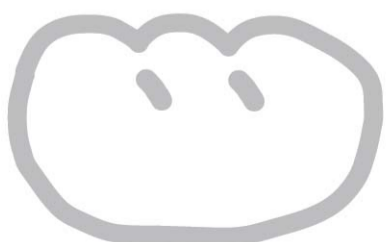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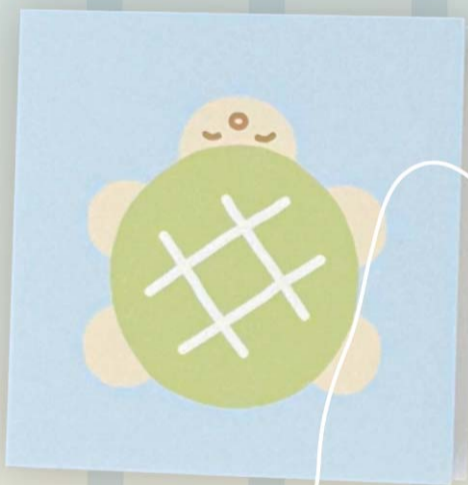
갤럭시 북6는 인텔 프로세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3’를 탑재, 빠르고 원활한 멀티태스킹과 AI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고성능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적용해 초당 50조번(50TOPS) AI 처리를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FOLDED

SET

CARD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AI發 고용충격 현실로... 사회 초년층 '직격탄'

정보통신업 등 취업자수 14.7만명 ↓
약 89% 청년층... 50대 이상은 미미
주니어급 기초업무, AI 대체 현상
정부, 고용충격 대응 정책마련 속도

가구회사에서 근무하던 이지영(가명)씨는 최근 자신이 맡던 디자인 업무를 마케팅 팀이 인공지능(AI) 도구로 대체하면서 권고 사직을 통보받았다. 게임회사에 재직하던 김정현(가명)씨 역시 퍼블리싱팀이 하루 아침에 해체되며 동료 5명과 함께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해당 팀이 담당하던 업무 역시 AI로 대체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실제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이 같은 'AI발(發) 고용 충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구조조정은 20~30대 사회 초년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쁨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고통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I 확산 속도는 가파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포인트 증가했다. 직군별로는 사무직의 이용 경험이 71.9%로 가장 높았고,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2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31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26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채용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났다.

AI의 확산이 청년층 취업을 가로막는다는 점은 실제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분석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자,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전체 감소분의 약 89%가 20~30대에 집중됐고, 이 중에서도 20대 후반에서만 8만1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 취업자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 폭이 미미해, 고용 축소 사실상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내부 인력 구조 역시 변하고 있

다.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124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직원 중 30세 미만 비중은 2022년 21.9%에서 2024년 19.8%로 감소했다. 반면 50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19.1%에서 20.1%로 증가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0세 미만을 앞질렀다. 이른바 '김 대리'는 줄고 '김 부장'은 늘어나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생성형 AI가 주니어급 인력이 담당해온 기초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초 코딩, 자료 조사, 초안 작성 등 반복적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경력 사다리'의 하단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해외 연구에서도 AI 도입 이후 사회 초년생 고용은 감소한 반면, 숙련 인력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역시 챗GPT 등장 이후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청년 고용이 위축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정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기 최종회의를 열고 AI시대 직무재설계, 고용 영향 평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4~5월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2기 포럼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6월, 이를 반영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기본계획은 ▲고용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전직 지원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포함 고용안전망 확대 ▲AI 시대 직무 전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 6개 축으로 구성된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콜센터 ARS 등 초기 단계의 AI 도입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최근에는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며 "회계사 등 전문직에서도 수습 채용이 줄어드는 등 대체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인한 고용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SKT 모델이 T멤버십 앱을 통해 '0 week' 및 'T day' 혜택을 확인하고 있다. /SKT

SKT T멤버십 개편으로 혜택 편의성 강화

'0데이' → '0워크'로 확대

SK텔레콤은 고객 혜택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T멤버십을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0데이'를 '0워크'로 확대 ▲VIP 전용 혜택 신설 ▲맞춤형 멤버십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13~34세 고객 대상 '0데이'를 '0워크'로 확대해 매월 첫째 주 5일 동안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정일마다 하나의 혜택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기간 내 다양한 혜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0워크'는 'T데이'와 통합 운영된다.

VIP 고객을 위한 혜택도 추가된다. 'T데이'에는 추가 할인 프로그램 'VIP 찬스', 특정 시간대 할인 프로그램 '해피아워'에는 'VIP 온리' 혜택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음식,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이 제공되며, 멤버십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유지된다.

/김서현 기자

"답 없는 프로젝트 과감히 정리"... 핵심 IP에 자원 집중

넥슨, 日서 '자본시장 브리핑'
비용 절감 아닌 구조 재설정
개발·운영 전반에 AI 적용

넥슨이 일본에서 열린 '자본시장 브리핑(CMB)'에서 수익성 중심 구조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패트릭 쇠더룬드 회장은 1일 "답이 없는 프로젝트는 과감히 줄이겠다"며, 기존 다수 프로젝트 중심 전략에서 핵심 IP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넥슨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매출 4조 5000억 원을 기록했지만, 인건비와 개발 비용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며 수익성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쇠더룬드 회장은 "비즈니스 검증 없이 진행된 프로젝트가 많았고, 의사결



(왼쪽부터) 이정현 넥슨 대표, 패트릭 쇠더룬드 넥슨 회장, 우에무라 시로 넥슨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열린 '자본시장 브리핑' 행사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넥슨

정 속도도 늦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짚었다.

특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구조 재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긴축이 아닌 포트폴리오 자체를 재편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성과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는 정리하고, 핵심 타이틀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본

격화된다.

다만,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쇠더룬드 회장은 "해고 계획은 없다"며 조직 축소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향후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 '메이플스토

리', '던전앤파이터', 'FC온라인' 등 기존 핵심 IP를 중심으로 확장 전략을 강화하고, '마비노기', '아크 레이드스', '낙원: 라스트 파라다이스' 등 신작 개발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략도 함께 공개됐다. 넥슨은 '모노레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및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넥슨의 전략 전환 신호로 해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몰락 중심으로 확대해온 개발 구조를 정리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IP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CNS, 기업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RX 이노베이션 랩' 출범

LG CNS는 기업의 로봇 도입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로봇 전환(RX) 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는 'RX 이노베이션 랩'을 출범했다. 해당 조직은 업무 환경과 도입 목적에 맞

는 로봇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워크플로우 재설계와 개념검증(PoC)까지 로봇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한다.

RX 이노베이션 랩은 ▲인사이트 단계에서 산업 특성과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 적용 영역을 발굴하고 ▲디자인 단계에서 자율이동로봇(AMR), 휴머노이드 등 솔루션을 선정해 작업 구조를 설계하며 ▲프루프 단계에서 데이터 기반

검증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생산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LG CNS는 개별 공정 자동화를 넘어 전체 업무 흐름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로봇 도입을 추진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입고부터 보관, 분류, 피킹, 포장, 출고까지 전 과정을 분석해 적용 구간을 도출하고 작업 흐름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물류·유통·제조 분야에서 로봇 PoC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물류센터 자동화 로봇, AI 피킹로봇, 자율

이동로봇, 무인운송로봇 등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번 조직 신설로 디지털 전환(DX), AI 전환(AX), 로봇 전환(RX)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디지털 전환 조직과 생성형 AI 기반 혁신 조직에 더해 로봇 영역까지 확장했다.

LG CNS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통합 운영 플랫폼, 하드웨어 역량을 결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과 협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필어비스 '붉은사막' 흥행 속도 판매량 400만장 돌파

필어비스는 1일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 400만 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필어비스는 공식 SNS를 통해 해당 성과를 공개하며 "전 세계 사용자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흥행 속도도 빠르다. 출시 첫날 200만 장, 4일 만에 300만 장을 넘어선 데 이어 12일 만에 400만 장을 돌파했다. 콘솔·패키지 중심 시장에서 이 같은 판매 추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구권에서의 반응이 두드러진다. 글로벌 플랫폼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어권 이용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중심의 콘솔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시장 환경도 맞물렸다. 2025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콘솔 시장의 약 74%를 북미와 유럽이 차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성과가 전체 흥행을 좌우하는 구조다. 기존 한국 게임 수출이 중국과 동남아 중심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플랫폼과 지역 다변화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붉은사막'은 심리스 오픈월드 '파이널'을 배경으로 주인공 '클리프'와 동료들의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 X/S,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최빛나 기자

RIA 흥행에도 자금 이동은 아직... 대형 증권사만 웃었다

RIA 계좌 5.7만개 넘어서며 순항
미주 보관금액 줄며 자금이동 조짐
자금 절반 이상이 대형사에 집중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RIA 확산 초기, 자금은 대형 증권사로 빠르게 유입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방향성과 투자 판단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입 자금이 일부 대형 증권사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제도 효과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시된 RIA 계좌는 전날 기준 5만 7000개를 넘어섰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미 1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 초기 흥행에 성공한 모습이다. 절세형 상품인 ISA가 1만 계좌 달성까지 한달 이상 걸렸던 점과 비교하면 빠른 확산 속도다.

자금 흐름에서도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월 말 1680억달러에서 2월 1639억달러, 3월 1465억달러로 감소하며 해외 투자 자금 이탈 흐름이 감지된다.

그러나 계좌 증가 속도에 비해 실제 자금 유입 규모는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RIA를 통해 유입된 금액은 약 3300억원으로, 해외주식 보유액 약 220조원 대비 0.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월 말 1680억달러에서 2월 1639억달러, 3월 1465억달러로 감소해 자금 흐름에서도 일부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RIA 덕분에 일어난 본격적

인 자금 이동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초기 자금은 특정 증권사로 집중되고 있다. 자기자본 상위 대형 증권사 3곳의 RIA 유입액은 약 1800억원으로, 전체 유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수 증가와 달리 실제 자금은 대형사로 쏠리며 시장 내 양극화 구조가 초기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증권사들은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현금성 혜택 등을 앞세워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며 초기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기존 해외주식 투자 고객 기반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점유율, 마케팅 역량이 결합되면서 자금이 자연스럽게 집중되는 구조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사실상 관망에 가까운 분위기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RIA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결국 대형 증권사들의 '행복한 고민'에 가깝다"며 "고객 기반과 마케팅

역력이 다른 상황에서 자금 쏠림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RIA를 통한 자금 이동이 단기간에 본격화되기도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형 증권사 내부에서도 자금 이동 속도는 기대보다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계좌 개설 속도도 점점 더뎠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계좌 개설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금이 한 번에 이동하는 흐름은 아니다"며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일정 기간 국내 자산에 묶어야 하는 구조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확신이 있어야 본격적인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관망 심리가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 100대 브랜드 13위... 경쟁력 입증

지난해보다 브랜드 순위 4계단 올라
국내 최대규모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미래에셋증권이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디지털 투자 플랫폼 성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순위가 상승하며, 자산관리부터 모바일 투자까지 전방위 경쟁력을 갖춘 금융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1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종합 13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자체 개발한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 산업군 브랜드를 종합 평가해 상위 100개 순위를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미래에셋대우

출범 후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하며 신뢰받는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세계 11개 지역에 진출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투자전문회사로, 국내외 고객자산(AUM) 약 718조 원(올해 2월 말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은 2025년 12월부터 3달 연속 증권사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업계 1위를 기록하며 고객 중심 투자 환경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주관하는 '유로머니 어워드(Euromoney Awards for Excellence)'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증권사'로 선정됐다. 또 글로벌 파이낸스(Global Finance)가 선정하는 '베스트 프라이빗뱅크 어

워드(Best Private Bank Awards)'에서는 국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프라이빗뱅크'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는 전 업권 최초로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미래에셋3.0' 비전을 기반으로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융합되는 차세대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토론회,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및 결제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월렛을 통해 글로벌 웹3.0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 김범석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Client First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감독원 포스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진짜 목소리' 공개

3959건 분석해 반복 사기범 특정
112·1332 통해 사실 확인 당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인데요. 본인 명의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에 쓰였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건넨 말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처럼 실제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인이 범행에 연루됐다", "명의가 도용됐다"는 식으로 상황을 구체화한 뒤, 계좌와 휴대전화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사기범들의 '진짜 목소리'를 공개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

1일 금융감독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제보된 보이스피싱 음성파일 3959건을 분석해 반복적으로 신고된 사기범 7명의 음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음성은 10회 이상 반복 제보된 사례로, 국과수의 성문 분석을 통해 동일 인물로 확인된 목소리다. 성문 분석은 사람마다 다른 음성 특징을 추출해 지문처럼 식별하는 방식이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찰·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연루'를 언급하며 공포심을 조성한다. 이후 '소환장 발부', '대면조사' 등 전문 용어로 압

박하며 전화상 '약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통화하라", "통화가 녹음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변의 도움이나 간섭을 차단시키고, 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계좌 정보와 금융자산 현황을 요구한다. 나아가 법원·검찰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무엇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로 자산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앱 설치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화를 즉시 종료한 뒤,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자금 이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역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허정윤 기자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조직 1·2부로 개편

커버리지 종목 수 400개까지 확대

신한투자증권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리서치본부 조직 확대개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개편은 기존 단일 부서로 구성됐던 기업분석부를 기업분석 1부와 기업분석 2부로 재편하고, 기업분석 1부에 혁신성장팀을 꾸려 생산적 금융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커버리지 확대 그리고 해외기업 분석 강화 등의 미션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도 국내 최대 커버리지를 자랑하던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커버리지 종목 수를 코스닥까지 포함해 4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서치본부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한국 주요 성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밀도 있게 분석한 블루북을 지난 16일 발간했다.

확대개편 된 기업분석1부의 혁신성장팀에서는 코스닥 및 비상장 유망 투자기업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분석력 강화를 위해 2~3차 애널리스트 집중 배치 및 외부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기업분석1부서장은 "혁신성장팀을 중심으로 코스닥 벤처,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의 BDC투자대상 기업, 비상장 유망투자기업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더해 기존 코스닥 기업들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양과 질 모두를 충족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양증권, 조직문화 혁신 전사 드레스코드 자율화

한양증권은 이날부터 전사 드레스코드 자율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정 변화를 넘어, 최근 한양증권이 추진해 온 전사적 체질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반영한 것이다.

한양증권은 지난해 6월 대주주 변경 이후 경영 전반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리스크 통제에 기반한 선별적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체질 개선에 집중해왔다.

한양증권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하은 기자

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 확정 '중앙회장' 187만 조합원이 뽑는다

2028년 차기 선거부터 직선제 도입 조합장 간선제 조합원 직선제 전환 동시선거로 선거비용 부담 줄이기 무자격 조합원 정비·자격관리 강화 정치화 우려엔 견제장치 보완 추진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 전체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로 직접 중앙회장을 뽑게 되며 2028년 3월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 그간 조합장 직선제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집중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농협개혁 추진단 역시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선출 권한을 기존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187만 명 조합원이 모두 투표권을 갖고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는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 가운데 복수 조합 가입자를 제외한 규모다.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선거 비용은 현행보다 350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달 31일 세종청사에서 관련 설명회를 갖고 "현행 조합장 직선제의 경우 조합장들이 중앙회에 와서 투표를 하고 돌아가는 구조이다 보니 48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



강호동(오른쪽 3번째) 농협중앙회장 및 임원들이 지난 1월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환될 경우 비용은 약 170억~19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동시선거' 형태로 진행된다.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년 후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되, 차기 회장의 임기를 조정해 2031년 3월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직선제 도입과 함께 조합원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비농업인, 주소·거소요건 미충족자, 경제사업 미이용자 등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와 정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라 제기되는 권한 집중과 선거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우선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을 통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내부 통제 장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 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전, 베트남 원전 공급망 구축 시동

PVN과 공급망 협력 세미나 개최
팀코리아 총출동해 전 주기 협력 제시
베트남 원전 수주 기반 선점 나서

한국전력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협력해 현지 원전 공급망 구축에 본격 나섰다. 베트남 정부가 원전 산업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기반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남부 봉따우에서 다투엔-2 원전 사업자인 PVN과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한전은 PVN 초청으로 자회사인 베트남 석유·가스 기술서비스 공사(PTSC)가 운영 중인 항만시설과 티바이 LNG 터미널을 방문해 현지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KNF), 두산에너빌리티,



한승훈 한국전력 해외원전개발처장(뒷줄 왼쪽에서 9번째)과 레 마잉 끄영(Le Manh Cuong) PVN 부사장(뒷줄 왼쪽에서 8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난 3월 31일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등 '팀코리아'가 총출동했다. PVN 측에서도 P TSC, VSP, Petrocons, PV Power, V PI, PVU 등 주요 자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팀코리아는 세미나에서 원전 설계·건설·운영·정비 등 전 주기에 걸친 한국의 원전 도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기업의 우선 참여 가능 분야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 연계 방안 등 베트남 맞춤형 공급망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협력은 베트남 정부의 원전 현지화 정책과 맞물려 추진됐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원자력 평화적 개발·활용 전략과 2050년 비전(결정문 제438호)'을 발표하고 원전 부대시설 건설 및 설치 시 자국 기업 참여 비중을 전체 투자 규모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은 정책 발표 이후 PVN과 신속히 공급망 협력에 착수했으며, 이를 향후 원전 사업 협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무보, 루마니아에 9억유로 금융 지원

한국 기업 방산 수주 발판 마련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루마니아 재무부에 9억 유로(약 1.5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금융은 수출·해외투자신(新)시장을 모색하던 무보와 재정 조달경로 다변화를 추진하던 루마니아가 금융 협력에 합의하며 추진됐다.

루마니아는 이자금을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방산물자 조달 등 국책 프로젝트 계약 이행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금융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무보는 2020년부터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요 발주처에 선금융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도 UAE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ADNOC에 20억 달러 규모의 선금융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한 바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방산 등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금융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상반기 860명 신입 공개채용

지원서 오는 7일까지 접수

농협중앙회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를 내걸고 올해 상반기 전국 농축협 신규직원 86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열정을 채용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4월7일까지 온라인으



서울 중구 소재 농협 본관.

로 받는다. 이후 5월17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6월2일 면접을 거쳐 6월 중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AI 수질 예측 시스템 도입

현장 대응 효율·방제 비용절감 기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교하고 신속한 녹조 대응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수질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가 강수량, 수온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해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체계다.

공사는 수질 데이터 52만여 건과 기상 데이터 64만여 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 예측 결과와 실제 측정 자료를 교차 검증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해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AI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현장 예찰을 줄여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녹조 발생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방제 작업을 실시해 투입 인력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과학적인 농업용수 수질 관리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농어민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농업용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전남 나주 소재 농어촌공사 본사.

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수지에 영양염류(질소, 인)가 유입되고 수온이 높아지며 녹조 발생 빈도가 늘었다. 실제 2024년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발령한 전국 농작물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882일에 달했다.

공사는 지난해 '녹조 예찰 강화 기간'을 지정하고, 354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현장 예찰과 수질자동측정센서 운영을 병행했다. 녹조가 발생하는 경우 물리적 차단과 화학적 제거를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간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번 AI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63억뷰 유튜브 스타! 국민 여동생의 컴백!!
 역대 인기송, 올동송, 친구들 총 출동!!



▲예매하기



©YOUNG TOYS

2026.5.1(금)~5.10(일)
성균관대학교 대극장 새천년홀

거제시, 산업부 '합정 MRO' 공모 선정... 사업비 495억 확보

남해안권 초광역 프로젝트 시동
美 등 글로벌 MRO 수주 토대 마련
변광용 시장 "지역경제 새로운 도약"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산업통상부 주관 '중소조선 합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49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제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방산·MRO 지원 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 짓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거제시를 중심으로 경남(창원·통영·고성)과 부산, 울산, 전남이 공동 참여하는 남해안권 초광역 프로젝트로서, 2026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495억 원(국비 250억, 지방비 245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합정 정비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거제시는 세계적 수준의 앵커 조선소를 보유한 이점을 살려, 남해안권 조

선 벨트 전체를 잇는 MRO 허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관내 및 남해안권 중소 기가재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MRO 공급망 플랫폼 운영 ▲미 해군 합정 정비 자격(MSRA, ABR) 인증 지원 ▲소재·부품 성능평가 기술지원 등이 추진되며, 이를 바탕으로 미 해군 등 글로벌 합정 정비 물량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닦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역설계, 고장진단 등 스마트 MRO 전문 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재직자 훈련수당 등을 지원해 지역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발판 삼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방위사업청의 '합정 MRO 클러스터 조성(방산 혁신 클러스터 2.0)' 사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두 사업이 연계될 경우 거제를 중심으로 남해안권 조선 벨트 전체가 설계·

건조부터 유지·보수, 부품 공급에 이르는 전 주기를 해결하는 '완결형 방산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거제가 단순한 건조 기지를 넘어 글로벌 합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협력사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며, 거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마트 조선·방산 거점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방산·MRO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전남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거제를 세계 최고의 합정 정비 특화 도시로 육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충남도 '내포어린이병원' 본격 건립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1단계 사업인 '내포어린이병원'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지난 31일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용지(홍성군 홍북읍)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포어린이병원은 도가 직접 건립하는 공공 의료시설로, 부지 6000㎡에 연면적 5326㎡,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487억 원이다. 완공은 2028년 4월 예정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주시

내일 '대릉원 돌담길 축제' 개막

경주 대표 벚꽃 명소인 대릉원 돌담길 일원에서 봄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축제가 열린다.

경주시는 '2026 경주 대릉원 돌담길 축제'를 4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대릉원 돌담길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주·야간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머무르는 관광도시' 경주 브랜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낮에는 거리예술 공연과 어린이·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밤에는 벚꽃길 경관 조명 '벚꽃 라이트'가 연출돼 낮과는 다른 분위기의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포항시

4일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 개최

노란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는 봄을 맞아 포항 대표 봄꽃 행사인 '포항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포항시는 '2026 포항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를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호미꽃해맞이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호미꽃에서 만나는 봄의 향연'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피크닉존과 캠핑존이 조성돼 봄 소풍 분위기를 즐길 수 있으며, 버블쇼와 풍선 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전남도, 1250억 지역성장펀드 조성

광주시와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에너지신산업·반도체 분야 등 투자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지역성장펀드' 출자 공모사업에 광주광역시와 공동 선정한 통합시대를 여는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1250억 원 규모를 조성하게 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도와 광주시는 모태펀드 자금 750억 원(전남 500·광주 250)을 확보했으며, 지방비와 민간 자본을 포함하면 총 1250억 원 이상이다.

지역성장펀드는 정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대책에 따라 지역 벤처투자 저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 벤처모펀드(Fund of Funds)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공모에서 두 시·도의 경계를 허문 '초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해 국비 확보액을 극대화하는 성

과를 거뒀다.

펀드 조성에는 전남도와 광주시를 비롯해 여수·순천·광양·나주·해남 등 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기업과 농협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거점 대학들이 출자자로 대거 동참했다.

펀드 운용 기간은 총 12년이다.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장기적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펀드 자금의 60% 이상을 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전남의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 해상풍력, 우주항공, 첨단바이오와 광주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대구시, 지역 청년 취업역량 강화

'2026년 합동 채용설명회' 성료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합동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양 지자체는 지난 달 31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2026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경북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기회를 넓히고 지역인재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과 경북개발공사,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9개 지역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민간기업인 i뱅크도 함께해 인재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도는 지난 달 31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2026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발굴과 육성에 힘을 보탤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 채용

15일부터 필기시험 원서 접수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19개 기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04명을 채용한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부산교통공사 256명 ▲부산도시공사 13명 ▲부산시설공단 46명 ▲부산환경공단 44명 ▲벡스코 5명 ▲부산의료원 3명 ▲부산연구원 1명 ▲부산신용보증재단 2명 ▲부산경제진흥원 2명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5명 ▲부산글로벌도시재

단 2명 ▲부산사회서비스원 3명 ▲부산디자인진흥원 4명 ▲부산문화재단 1명 ▲영화의전당 6명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1명 ▲부산문화회관 5명 ▲부산기술창업투자원 3명이다.

원서 접수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거나 한 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또는 채용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AI 인재양성·AX' 가속화

AWS·울산대 등 MOU 체결

울산시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 업스테이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3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4개 기관과 '울산 AI 인재 양성 및 인공지능 전환(AI)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가 지난 2월 수립한 '울산형 AI 비전'의 후속 조치다. 지역 산업과 도시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 아래,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울산대·울산과학대는 AWS의 클라우드·AI 인프라를 활용

한 특화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AWS 교육센터도 구축해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클라우드·AI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AWS는 글로벌 표준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연구 지원, AX 가이드 제공을 맡는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 기업인 업스테이지는 산업 수요 기반의 AI·AX 교육 기획과 기술 협력, 현장 적용을 위한 멘토링을 담당한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이 2027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SK-AWS 울산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사천시, 재난안전관리 강화

사천시가 집중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시청 5층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되며, 태풍·호우 예비특보 등 기상특보가 예상될 경우에는 공식 운영 개시 전이라도 사전 가동에 들어간다.

대응 체계는 초기 대응과 비상 1·2·3단계로 나뉘는 4단계 구조로, 재난 규모에 따라 전 직원 비상 근무 체제로도 전환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흐드러진 벚꽃 보며 차 한잔... 도심·자연 속 힐링공간 '각광'

커피업계, 봄 나들이객 맞이 분주
석촌호수 등 풍경형 매장 급부상
반려동물 공간·루프탑 취향 저격



스타벅스석촌호수점 내부



/스타벅스 코리아 할리스 일산장항점 전경.



/할리스 블루보틀 연남 카페 /블루보틀

봄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봄나들이를 준비하는 발걸음도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봄철(3~4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봄꽃 개화 시기 역시 지난해보다 최대 4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이 예년보다 빠르게 다가오자 소비자들의 나들이 계획도 자연스럽게 앞당겨지는 분위기다. 자연의 풍경 속에서 커피 한 잔이 주는 '시려 깊은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카페들을 소개한다.

◆ 도심에서 즐기는 계절의 변화

스타벅스 석촌호수점은 석촌호수 카페거리에 자리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상 1~3층에 걸친 여유로운 공간을 갖췄다. 씨앗에서 한 잔의 커피로 이어지는 여정을 석촌호수의 사계절 변화와 연결한 콘셉트가 매장 전반에 반영됐다. 발아부터 수확까지 커피 생애주기를 상징하는 컬러와 디자인 요소가 총별로 구현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어

진다. 1층은 토양을 형상화한 흙빛 타일 인테리어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2층은 아이보리와 화이트 톤으로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는 순간을 표현했다. 3층에는 꽃이 무르익는 여정을 담은 아트웍과 커피 수확을 연상시키는 모자이크 타일이 배치돼 커피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마무리한다.

벚꽃 산책로로 유명한 연남동 경의선 숲길과 맞닿아 있는 블루보틀 연남 카페는 도심에서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벚꽃이 흐드러진 숲길을 따라 걷다가 들려 여유를 즐기기에 좋은 동선으로, 나들이의 설렘과 휴식의 여유

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도심 속에서 한적한 힐링을 원한다면 할리스 덕성여대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솔밭근린공원을 마주한 이 매장은 100년 생 소나무 숲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층 규모의 대형 매장으로 1층 테라스와 3층 루프탑에서 봄바람과 솔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다.

◆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나들이

일산호수공원 산책로 인근에 위치한 할리스 일산장항점은 피크닉 전용 음료를 포장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한다. 정발산역과 가깝고 호수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반려동물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 중이라면 경기도 남양주의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이 제격이다. 1층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약 28평 규모의 실내 펫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어 날씨에 관계없이 방문할 수 있고, 야외에는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펫 파크도 조성돼 있다. 다양한 조형물과 루프탑에서 바라보는 북한강 풍경은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강원도 춘천의 대표 매장인 스타벅스 더춘천의암호R점에서는 매장 인팍 좌석 어디에서든 의암호와 삼악산의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스페셜티 커

피의 풍미와 함께 자연 경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해가 저문 뒤에는 음악과 커피를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이 운영돼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블루보틀 부산 민락 카페는 부산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매장이다. 지속 가능한 자재를 활용해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디자인을 구현했으며, 바리스타의 추출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쿠팡, 입점 소상공인 기업 30만곳 돌파

지난해 거래액 20% 이상 성장
"정부 소상공인 육성정책 기조 부응"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매출 30억원 이하)이 지난해 30만명을 넘어섰고, 거래액도 20% 이상 성장했다. 경기체제와 내수부진의 어려움 속에서도 2460만명의 활성고객, 전국 쿠폰권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대만 로켓 배송 투자를 확대한 쿠팡은 우수한 한국산 상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수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적극 부응할 방침이다.

쿠팡은 입점 소상공인 기업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0만 곳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소상공인 수이다. 소상공인 입점업체 수는 지난 2023년

약 23만곳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30만곳 고지를 넘어섰다. 2년 간 쿠팡과 손을 잡은 소상공인이 30% 늘어난 것이다. 현재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 10곳 중 7곳 이상이 경성·전라·충청·강원도 등 지역에 포진해 있다. 이들 소상공인들의 지난해 거래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성장률(0.2%·한국신용데이터)과 비교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소상공인들의 판로는 최근 쿠팡이 대만 로켓배송 풀필먼트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함에 따라 해외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대만 타오위안에 네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립하면서 대만 지역 70%에 로켓배송을 실시, 대만 중남부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00만여 명

의 인구를 보유한 대만 시장에는 K식품·뷰티·패션·생활용품 등 쿠팡 입점 중소기업이 1만 곳 이상 진출한 상태다.

쿠팡은 최근 대만에서 모바일 액세서리, 반려동물용품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대, 중소기업 수출 범위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을 포함, 1000여개의 우수 한국 중소기업 상품을 대상으로 대규모 K중소기업 기획전을 진행했다.

쿠팡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대만 등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물류 및 수출 윈스톱 지원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인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 유통

美 프리미엄 라거... 도수 4.7%

하이트진로가 미국 프리미엄 라거 맥주 브랜드 'Miller Genuine Draft(밀러 제뉴인 드래프트)'의 국내 유통을 4월 1일부터 진행한다.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는 글로벌 주류 기업인 'Molson Coors Beverage Company(몰슨 쿼스 베버리지 컴퍼니)'가 1985년 출시한 프리미엄 라거 맥주 브랜드다. 170년 양조 철학을 바탕으로 4번의 필터링을 거쳐 만들어 부드러운 맛과 강렬한 신선함이 특징이다. 균형 잡힌 풍미와 청량감을 가진 정통 미국 프리미엄 라거 타입으로 도수는 4.7%이며 가정용인 500ml 캔과 유통용인 330ml 병 2종이 출시된다.

국내 재출시에 맞춰 브랜드 콘셉트인 'Break the Mold(정해진 틀을 깨봐)'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패키지를 리뉴

얼하고 온라인 캠페인도 선보일 예정이다. 패키지는 밀러의 상징인 'M'로고는 전면에서 유지하면서 기존보다 밝은 골드 컬러를 적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했다. 또한 온라인 캠페인에서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아 브랜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 온라인 캠페인은 1일 '밀러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권역 권관조 권역장은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는 부드러운 맛과 강렬한 신선함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브랜드"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와 함께하는 순간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차별화된 프리미엄 라거로서 존재감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무신사, 박창근 이사 선임

무신사가 패션 업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과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무신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창근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박창근 선임 사외이사(사진)는 30여 년간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국내 안착과 한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이끌어온 패션 전문 경영인이다.

무신사는 이번 선임으로 사외이사를 4명으로 확대,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신원선 기자

대상, 청정원 30주년 캠페인 영상 공개

저당 제품군 등 '맛있는 일상' 담아

대상 청정원이 브랜드 론칭 30주년을 기념해 모델 임윤아와 함께 제작한 브랜드 캠페인 본편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1일 공개한 티저에 이은 첫 번째 캠페인 영상은 '우리가 원하던 건강한 오늘'이라는 핵심 메시지 아래, 알룰로스, 저당 홍초, 저당 드레싱, 저당 현미 고추장 등 저당 제품군부터 콩담백면, 그레인보우, 두부, 동물복지유정란 등 청정원 제품과 함께 하는 '맛있는 일상'의 모습을 담았다.

영상 속에서 임윤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식재료와 청정원 제품들로

세심하게 한 끼 식사를 완성하며 '살맛나는 모든 순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청정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새로운 캠페인 영상은 청정원 공식 유튜브 채널 '청정원 푸드캐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V 광고, 디지털 매체, 옥외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한편, 1996년 첫 선을 보인 청정원은 국내 식문화를 이끌어 온 대한민국 대표 종합식품브랜드로, 올해는 브랜드 론칭 30주년을 맞아 식품 전문 브랜드를 넘어 일상과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선도하는 라이프푸드 전문 브랜드'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신원선 기자

신제품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 제로 유자

롯데칠성음료가 달콤하고 산뜻한 유자향을 담은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제로 유자(사진)'를 선보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제로'의 지속적인 인기와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이번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칠성사이다 제로 유자는 기존 칠성사이다 제로에 유자향을 추가하여 달콤하고 산뜻한 유자를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다. 또한 제로 칼로리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기존 칠성사이다 제로 제품만의 깔끔하고 짜릿한 청량감은 그대로 살렸다.

제품 패키지는 칠성사이다 고유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라벨 중앙에 산뜻한 노란색 컬러의 별 엠블럼과 유자 이미지를 담았고, 제로 유자(ZERO YUJA)라는 제품 네이밍을 통해 유자향과 상큼하고 청량한 제품 속성을 소비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은 355ml 캔과 500ml 펫 제품으로 출시된다.

/신원선 기자

“어려지는 비밀, 세포 속에 다 있네” 바이오 입고 더 똑똑해진 K-뷰티

이미인-라비오, 고기능성 소재 연구 미토콘드리아·세포에너지 ‘강점’ HLB랩 더마사이언스브랜드 ‘랩센’ 커큐민 펩타이드 원료 제품 선택 리필드, 모발성장 촉진 성분 개발 세르본, 화장품 성분 세포 내 침투

뷰티와 바이오의 결합으로 K뷰티 산업의 기술 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다. 스킨케어 연구개발이 ‘세포’ 단위에서 이뤄지면서 항노화 개념 역시 ‘통제비티(피부 장수)’로 확장된다.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이나 슬로우에이징에서 피부 세포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주문자위탁생산(OEM) 및 제조개발생산(ODM) 전문 기업 이미인은 지난달 31일 바이오 기업 라비오와 ‘세포 에너지 기반 항노화 화장품 소재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1년간 공동 연구에서 고기능성 소재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제조기업과 소재기업이 협업해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수행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미인은 라비오와 함께 도출한 소재의 제형 안정화, 화장품 적용 등을 추진한다. 라비오는 세계 최초 발효효일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원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다. 난용성 물질 가용화 및 캡슐화 기술, 효능 검증을 위한 플랫폼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천연 유래 소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 및 세포 에너지 관련 연구에서 강점을 갖췄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세포 에너지 감소 등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다.

이미인 측은 “이번 협약은 차세대 항노화 소재를 발굴하고 과학 기술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펩타이드 원료 전문 기업 HLB랩은 기존 HLB그룹 내 뷰티 브랜드 미인실록과 협력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더마사이언스 브랜드 랩센을 추가 공개했다. 원료를 외부에서 공급하는 일반적인 뷰티 브랜드와 달리 독자 펩타이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료 내재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HLB는 핵심 원료로 ‘커큐민 펩타이드’를 선보인다. 강황에서 추출한 항산화 성분 커큐민에 펩타이드를 더해 피부 전달력을 높였다. 랩센 브랜드 첫 제품으로는 ‘펩타이드 카밍 세럼’을 내놓는다. 3종 펩타이드에 하이드록시시데실유비퀴논, 아데노신 등을 배합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등을 돕는다.

앞서 미인실록과는 ‘펩타이드 헤어&비디’ 제품군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들

은 루마니아 현지의 알마파머시 매장에 입점하는 등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고 지난달에는 루마니아 초도 물량이 완판되기도 했다.

HLB랩 측은 “27년간 축적한 국내 최고 수준의 펩타이드 기술력으로 스킨케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문성은 인디 뷰티들의 기업 전략에서도 성장 요소다. 지난달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전략 투자를 유치한 탈모·두피 케어 브랜드 리필드의 경우, 탈모 전문가가 특허 성분 ‘사이클릭 ADP-리보소(cADPR)’를 개발했다. 리필드는 이 성분이 모발 성장 관련 신호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까지 규명했다. 성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발모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로 평가받는다.

스킨케어 브랜드 세르본은 서울대 출신 연구진이 바르는 백신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세포 투과 펩타이드’를 처방해 화장품 유효성분을 세포 내부로 침투시키는 기술을 구현했다.

국내 뷰티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 특성 상 감각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나 디자인은 물론, 바이오 기술이식도 활발한 상황”이라며 “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쌓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에서 열린 인수 완료식에서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강경화 주미한국대사,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에이프릴 델라니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생산시설 첫 인수

글로벌 의약품 생산거점 확대

총 생산능력 84만5000L로 확대 안정적 공급·신규 수주 본격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Rockville)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를 최종 완료하며 미국 내 첫 생산거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12월 계약 체결 발표 이후 약 3개월간 후속 절차를 거쳐 인수를 완료했다. 인수 주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이다.

록빌 생산시설은 총 6만L 규모의 원료의약품(DS) 생산공장으로, 두 개의 제조동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시설은 임상 단계부터 상업생산까지 다양한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총 생산능력을 기존 78만5000L에서

84만5000L로 확대했다. 특히 북미 지역 내 고객 대응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송도와 미국 록빌을 잇는 이원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고객에 안정적이고 유연한 생산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지 전문 인력 500여명을 전원 고용 승계해 운영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양 생산거점 간 통합 과정을 통해 기존 생산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신규 수주 확대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수요와 가동 상황을 고려해 록빌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 등 추가 투자도 검토할 방침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인수는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록빌 시설의 전문 인력과 함께 운영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광동제약, 산림자원 활용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

약 5년간 총 36억 연구비 투입

광동제약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산 산림자원의 인공지능(AI) 기반 전주기 표준화 및 임가 연계 개별인정형 원료 글로벌 사업화’ 국책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기치사슬기술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광동제약은 단순 가공·원물 판매에 머물렀던 국산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령화 시대 헬스케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혁신

소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 내용은 ▲개별인정형 원료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AI 기반 품질 표준화 기술 구축 등이다. 광동제약은 다년간의 기능성 소재 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소재의 규격화와 공정 표준화를 완성하고 신뢰도 높은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에는 주관 기관인 광동제약을 비롯해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전문임업인협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5년간 총 36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광

동제약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체적용시험 및 개별인정 인허가, 해외 인증을 주도할 예정이다.

박일범 광동제약 천연물융합R&BD 본부장은 “공동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고도화된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산 산림자원의 우수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나이가 이 번 국책과제를 계기로 임업 농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검증된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제약, 알레르기 치료 편의성 개선

오리클로 300mg PFS형 도입

셀트리온제약은 알레르기질환 치료제 ‘오리클로프리필드시린지주’ 사전중전형주사제(PFS)형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시로 고용량 제형이 추가되면서 환자의 투약횟수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의 처방 선택 폭은 한층 확대됐다.

셀트리온제약의 오리클로는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로, 이번 300mg PFS 도입을 통해 기존 75mg, 150mg에 이어 고용량 제품 라인업까지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진료 현장에서 환자 상태와 치료 계획에 맞춘 보다 유연한 용량 선택이 가능해졌다.



셀트리온제약 ‘오리클로 300mg’

특히 오리클로 300mg PFS는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300mg 투여 시 150mg제형을 2회 투여했으나, 300mg 제형 출시로 1회 투여가 가능해졌다. 주사 횟수가 줄면서 환자의 투약 부담이 완화되고, 의료진의 투약 편의성도 높아졌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美 FDA에 신약허가 신청

‘세노바메이트’ 경구 현탁액 제형

SK바이오팜이 뇌전증 핵심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사진)’의 경구 현탁액 제형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NDA 신청은 기존 정제(Tablet) 제형에 이어 추가 제형 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성인 부분발작(POS)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액상 형태의 경구 현탁액 제형은 정제 제형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

고, 환자의 상태나 치료 환경에 따라 유연한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K바이오팜은 이를 기반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범위를 넓혀왔으며, 현재 세노바메이트의 소아대상 임상 개발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번 성인 대상 신약허가신청과 소아대상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투약 연령층을 소아·청소년 환자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개최된 2025 미국 뇌전증학회(AES) 연례학술대회에서는 세노바메이트의 기존 정제 제형 경구 현탁액 제형을



비교한 약동학(PK) 연구 결과 포스터 세션을 통해 공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제형은 체내 흡수 및 약물 노출 양상이 전반적으로 유사해, 약동학적 특성의 동등성을 입증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세노바메이트 경구 현탁액 제형은 정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SK바이오팜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 관점에서 치료 선택지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애프터 선 젤 로션’으로 피부진정 관리

동아제약 더마화장품 브랜드 ‘파티온’ 수분 공급·5대 선별 증상 복합 케어

동아제약의 더마화장품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자외선 노출 이후 선별(Sunburn) 피부를 케어하는 신제품 ‘애프터 선 젤 로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 파티온 애프터 선 젤 로션은 자외선 노출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5대 선별 증상(피부 열, 자극, 건조, 각질, 색소침

착)을 복합적으로 케어하는 제품이다.

젤 타입과 로션의 장점을 결합한 제형으로, 피부에 닿는 즉시 산뜻하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을 제공한다. 알로에의 한계를 보완해, 피부 온도 감소와 진정 효과는 물론 자외선으로 인한 수분 손실, 각질, 색소침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단순 진정을 넘어 근본적인 선별 케어가 가능하도록 동아제약 독자 성분인 ‘아퀼레리페어™’가 58% 함유되어 있다.

/이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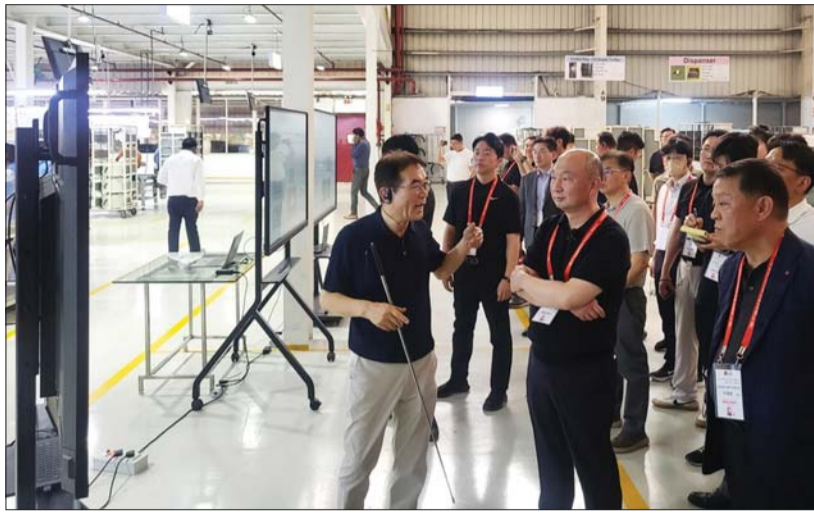
디지털트윈·AI 접목... LG전자, 협력사와 공정 혁신

협력사와 인도 공장 찾아 사례 공유 스마트공장·ESG펀드 자금 등 지원

LG전자가 협력사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제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공간을 가상으로 정밀하게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실제 공장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면 AI·빅데이터 등을 통한 분석이 수월해져 운영 효율을 높일 방법 등을 찾을 수 있다.

LG전자는 최근 주요 협력사 대표 11명과 함께 인도 푸네 생산공장을 찾아 제조 공정을 점검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협력사들이 해외 생산법인의 선진 공정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 간 벤치마킹을 통해 제조 역량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에서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는 한 협력사는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이고 불량률을 75% 이상 낮췄다. 공정 디지털화를 통해 설비



LG전자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생산성 개선 우수 사례로 꼽힌 LG전자 국내 협력사의 인도 현지 공장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LG전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발생 시 조치 시간도 기존 대비 67% 줄였다.

냉장고 부품 협력사 역시 도장 공정에 '스마트 복합 도장라인 DX 시스템'을 도입했다. AI 기반 비전 검사 시스템을 적용해 제품 색상 분류와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면서 검사 시간은 75% 줄고 도장 불량률도 약

70% 감소했다.

LG전자는 협력사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AWE 2026'에 협력사를 초청해 글로벌 제조 트렌드를 공유했으며, 올해는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 거점 방문 프로그램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남 창원 LG 스마트파크에서 83개 협력사가 참여한 '2026년 협력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협력회는 LG전자와 협력사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 LG전자는 피지컬 AI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활용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9년 이후 지원을 받은 협력사는 250곳을 넘는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와 ESG펀드를 통해 자금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이자 설비 투자 지원 규모를 기존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재현 LG전자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은 "협력사들이 최신 기술과 생산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베트남 '계약물류' 드라이브

CJ대한통운은 베트남 소재 CJ제마뎀 법인의 물류부문을 지분을 추가 취득하고 비핵심사업인 해운부문을 분리하는 등 사업재편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 호치민 CJ빌딩에서 열린 CJ대한통운·제마뎀간 물류-해운 지분거래 계약 체결식에서 CJ대한통운 이종훈 경영지원실장(왼쪽 세번째)이 제마뎀 응우옌 탄 빈 CEO(왼쪽 네번째)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CJ대한통운



"LGU+ 장기고객이라면 뮤지컬 함께 봐요"

LG유플러스는 장기고객을 대상으로 뮤지컬 관람 행사 '혜택데이'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인 코엑스아트룸에서 장기고객 초청 행사인 뮤지컬 '렘피카'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2년 연속 WMEC 선정

글로벌 윤리경영 역량 입증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윤리경영 평가기관 에티스피어로부터 2년 연속 '2026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MEC)'로 선정됐다.

에티스피어는 기업 윤리 관행의 표준을 정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세계적인 윤리경영 평가기관으로 자체 개발한 '윤리 지수'로 평가를 진행해 매년 WMEC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7개국, 40개 산업 분야에서 총 138개 기업만이 선정됐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5개 기업만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국내 반도체 기업 최초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윤리경영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에티스피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는 SK하이닉스 구성원들. (왼쪽부터) SK하이닉스 윤리실천 한기혁 팀장, 에티스피어 Erica Salmon Byrne 최고전략책임자 겸 이사 사회 의장, SK하이닉스 윤리실천 이혜미 TL, 장선재 TL, Tom Bubeck 에티스피어 CEO. /SK하이닉스

입증했다.

평가 기준은 지난해보다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특정 윤리경영 제도 운영 여부를 물었지만 올해는 활동계획 수립, 실행 프로세스, 활동 완료 후 효과성 평가 증빙 자료까지 요구했다.

/구남영 기자

전종석 상무, 상공의 날 '대통령 표창'

(LG디스플레이)

국내 기업 주도권 확보 기여 공로

LG디스플레이는 전종석 상무(사진)가 지난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상공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공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매년 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근로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전 상무는 글로벌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중소형 OLED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 OLED 고객



기반을 넓히며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주도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2000년 LG.Philips LCD(현 LG디스플레이)로 입사한 후, 지난 26년간 디스플레이 산업에 몸담으며 시장 및 고객 기반 확대에 힘써왔다. 모바일·IT·TV 전 제품군의 영업·마케팅을 두루 거치며 LG디스플레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하나금융, '도토리나무 키우기'로 탄소중립 실천

하나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숲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그룹 임직원이 참여하는 '도토리나무 키우기'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토리나무 키우기 봉사활동은 하나금융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ESG활동으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그룹 임직원 780여명이 참여했다.

/하나금융그룹



'카카오테크 캠퍼스', 지역 개발자 양성 강화

카카오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AI 중심으로 개편하고 4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4기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5개 거점 국립대에서 총 150명을 선발한다. 교육생들은 카카오 현업 개발자의 멘토링을 통해 실제 서비스 개발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카카오

인사

- ◆보건복지부 ◇3급 승진 △장관비서관 신재형 △기획조정담당관 오상운 △북지정책과장 이현주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영진 △한의약정책과장 왕형진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공인식 △보훈약제과장 김연숙
- ◆라이나생명,라이나원 ◇라이나생명 △서민호 소비자보호본부 상무 △김형남 재무관리본부 상무 △백혜진 회계본부 상무 △오수연 RM본부 상무 △이슬이 법무&프라이버시본부 이사 ◇라이나원 △박상섭 경영관리부문 전무 △김영현 영업지원본부 상무 △이상호 영업지원부 이사
- ◆교보증권 ◇보임(부서장) △채권운용부장 김택우 △ECM1부장 김태완

부음

- ▲이문호(한국은행 전 국제협력실장)씨

별세, 이태운(한국은행 국제협력국 국제기구팀장)씨 부친상 = 3월 3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일. 02-2227-7500

▲박영식(변호사-전 광주지방법원장-전문중재위원)씨 본인상, 박재형(PWC 컨설팅 상무)-박수현-박지혜씨 부친상, 임은정씨 시부상, 김동진(국민은행 건강전략센터원장)씨 장인상 = 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4월 3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소망동산. 02-2258-5919

▲조재선씨 별세, 김성민(BNK금융지주 홍보부 과장)씨 모친상=1일 오전, 부산진구 시민장례식장 304호, 발인 3일 오전 8시. 051-636-4444

▲강임화씨 별세, 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씨 모친상, 나경원(국민의힘 국회의원)씨 시모상 = 3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층 31호실, 발인 4월 3일. 02-2258-5946

창립 37주년... 성장동력 확보 강조

기술보증기금이 창립 37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술금융 선도기관을 위해 추가로 도약한다.

1일 기보에 따르면 김종호 이사장(사진)은 이날 창립기념사를 통해 "그간 기보는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R&D 금융을 비롯해 녹색금융, M&A 보증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왔다"면서 "현재의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금융 선도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 강화 ▲글로벌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공정성·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 신뢰 확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기보는 이날 별도의 창립기념식 행사 대신 김 이사장이 참여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임직원 간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독립점점 후원과 도서 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감하며 상생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편, 기보는 올해 5조 4000억원의 신규보증을 포함해 총 30조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기술선도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중소기업팩토링 1000억원을 공급하고 창업기업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적 금융도 강화한다.

/김승호 기자



아모레퍼시픽,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2관왕

아모레퍼시픽이 '제20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6)'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제20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

2028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대응전략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대입 지형은 2028학년도를 기점으로 거대한 전환기에 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내신 등급의 표면적 변별력을 낮추는 동시에 성적표에서 표준편차를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대학이 학생의 실질적 위치를 파악할 정밀한 통계적 도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분 뒤에 내신 기록의 질적 평가 강화와 대학별 고사의 실질적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입시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표준편차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성취도별 분포비율이다. 대학은 이제 이 지표를 통해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엄격히 감시한다. 특정 과목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이 과도하게 많은 학교의 내신 1등급은 대학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워

진다. 반면 변별력을 확보해 A등급 비율을 적절히 통제된 학교에서 얻은 높은 원점수는 학생의 진정한 학업 역량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변별력을 잃은 정량적 수치 대신 대학은 면접과 서류 평가를 통해 학생을 검증하려 하며 이는 모든 전형이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의 성격을 띠게 되는 전형의 수렴 현상을 초래한다.

과거 9등급 체제에서 대학은 학생의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편차를 활용해 집단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 이 정밀한 척도가 사라짐에 따라 대학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놓인다. 대학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명칭과 그 이수 경로인 궤적에 주목한다. 고교학점제 환경에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는 그 자체로 학생의 학업적 용기와 전공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비록 최종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물리Ⅱ나 고급 수학 또는 융합 과학 탐구와 같은 심화 과목을 정면으로 돌파한 기록은 표준편차가 사라진 성적표에서 학생이 우수한 집단 내에서 치열하게 학업에 매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는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 논쟁을 넘어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내신 변별력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 2028 통합형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사라짐에 따라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문항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공통 과목의 실질 난이도 상승을 유발하며 대학은 이를 통해 내신 성적에 포함된 거품을 걷어내는 최종 필터로 활용한다.

또한 학생부 기록의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은 면접 고사의 비중을 높이거나 방식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는 심층 구술 면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028 대입 개편은 우리에게 숫자가 아닌 역량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부산시교육청의 전수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전 과목에서 완벽한 성취를 거두는 학생은 여전히 극소수이며 대학은 그 희소성을 찾아내기 위해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준비를 마쳤다.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서학개미 유턴 ‘머뭇’... RIA에 붙은 물음표



허 정 연
(자본시장부)

“5월 안에 국내시장복귀계획(RIA)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이 없다는데 맞나요? 그런데 환율도 높고, 자금 팔면 손해 아닌가요?”

최근 증권사 고객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된 RIA 계좌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자금은 쪼뼔쪼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며 고 환율 고착화 우려가 커지자, 해외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를 부추렸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해외주식 매수를 위한 달러 수요가 환율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

금을 돌리면 세제 혜택을 주는 RIA를 내놨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낮춰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친다. 출시 일주일 만에 계좌는 약 5만7000개로 늘었지만, 실제 유입 자금은 3300억원에 그쳤다. 해외주식 보관액이 200조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0.15% 수준에 불과하다. 계좌는 늘었지만 돈은 움직이지 않는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주식 매도에 신중하다. 수익률과 환율, 재진입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립식으로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에게 RIA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미국 증시 조정에도 낙폭이 제한적인 종목이 적지 않고,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변수다. 여기에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 자금을 옮길 뚜렷한 대안이 부족하다.

결국 정책과 시장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투자자는 세제 혜택보다 타이밍을 우선하고, 자금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 형국이다.

아쉬운 건 RIA의 설계다. 현행 제도는 특정 시점까지 매도와 1년 보유를 동시에 요구하는 ‘기한 집중형’ 구조로, 투자자에게 한 번에 큰 결정을 강요한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히려 자금 이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행처럼 1년 보유를 전제로 최대 혜택을 주는 단일 구조는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진입 부담을 키운다. 최고 한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이상의 중기 보유 구간(예를 들어 6개월 기준 2000만원 등)을 두고 혜택을 나누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마련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조다.

/zelkov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일 (음 2월 15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돈을 좀 써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60년생**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72년생** 일에 열중하다 보면 일신에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84년생** 흥한 기운이 있습니다.
- 49년생**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61년생** 피로가 쌓여 신경성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73년생** 지출이 동결되어 한숨 돌리게 됩니다. **85년생** 몸과 마음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입니다.
- 50년생** 밝게 하루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년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하루입니다. **74년생** 계획은 내일로 미루세요. **86년생** 욕심을 너무 부리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 51년생** 전전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63년생** 시비가리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75년생**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87년생** 안장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세요.
- 52년생**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64년생**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76년생**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88년생**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53년생** 고집스러운 생각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65년생** 소극적인 자세가 유리합니다. **77년생** 고심하던 일들이 해소되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운입니다. **89년생** 경솔한 행동을 보이기 쉽습니다.
- 54년생** 경솔한 행동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66년생** 한꺼번에 얻으려 하지 마세요. **78년생** 서두르면 행운을 놓치니 늘 조심하세요. **90년생** 노력을 안 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 5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더 주도록 하세요. **67년생** 사랑을 조금 더 베풀도록 하세요. **79년생** 어려운 일이 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91년생** 뒷사람과 상의한 다음 차분히 행하도록 하세요.
- 56년생** 명석한 자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68년생** 사람은 언제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80년생** 심신이 아주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92년생**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 57년생**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세요. **69년생** 주변 사람들과 괜히 다투지 마세요. **81년생**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93년생** 인간관계가 순조롭고 재물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 58년생** 오늘의 가능한 단정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70년생** 재래시장의 활기참을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82년생** 악세사리를 하는 것이 이미지에 도움이 됩니다. **94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 59년생** 기분 좋은 하루로 생동하는 날입니다. **71년생**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83년생** 말 조심, 몸 조심하세요. **95년생** 술자리가 있게 된다면 작은 잔으로 한 잔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다. 인생사 고(苦)라 했는데 어떻게 날마다 좋을 수 있겠는가? 좋은 일든 안 좋은 일든 기꺼이 받아들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는 뜻이라. 겨우내 춥고 움츠리게 하던 날씨도 입춘이 지나고 우수 경칩을 지나면 햇살이 소한과 대할 때의 햇살이 아니요, 사뭇 부드럽다 못해 간질거리듯 목둘레에 와 닿는 느낌이 다르다. 봄의 정취를 느끼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인생이 재미가 없고 그날이 그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감정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약어는 왜 그리 많은지 외국어와 다름없고 자연스레 ‘라떼족’이 되어 간다. 그런데 청춘들이라 해도 각자 삶의 무게로 이리저리 치이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몸과 마음을 심기일전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순간에 차나 커피를 마시거나 달콤한 쿠키 같은 스위트한 디저트를 먹기도 한다. 당이나 카페인이 뇌 신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필자의 심기일전법은 하루 중이라도 뭔가 마음 답답한 것이 올라오면 바로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새로워진다. 이외에도 나름대로 ‘일상 즐긴법’이 있다. ‘절기 즐기기’다. 우리 선조들은 한 해에 24번 있는 절기를 하루루 보내지 않았다는 데서 얻은 팁이다. 요즘이야 전통 민속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과 여러 종류의 나물을 준비해 먹고 우수 경칩 때는 고로쇠 물을 받아 마시며, 삼월 삼짇날에는 화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밀전병을 부쳐 먹는다. 단오 때에는 썩이 제철이니 수리취로 썩버무리나 썩떡을 해 먹고 하지 때에 감자가 맛이 제일 좋을 때라 감자를 고슬고슬 찌서 먹는다. 절기로 일일시호일에다 월월호시월(月月好是月)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5			1	2	4
7	3					9
				3		
	3	7			1	
5	6			4	9	
	7		5	6		
		1				
	9				8	7
3	7	5			6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6	8	7	9	2	1	8
2	8	1	9	8	2	9	6	7
9	7	8	2	6	1	2	9	8
8	2	9	7	9	8	6	2	1
6	2	7	2	1	8	9	8	9
8	1	9	6	2	9	8	7	2
1	9	2	8	6	7	2	9	1
9	6	8	9	2	7	1	8	2
7	8	2	1	9	2	8	9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www.newsis.com



뉴스یس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یس와 손을 잡고 뉴스یس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یس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یس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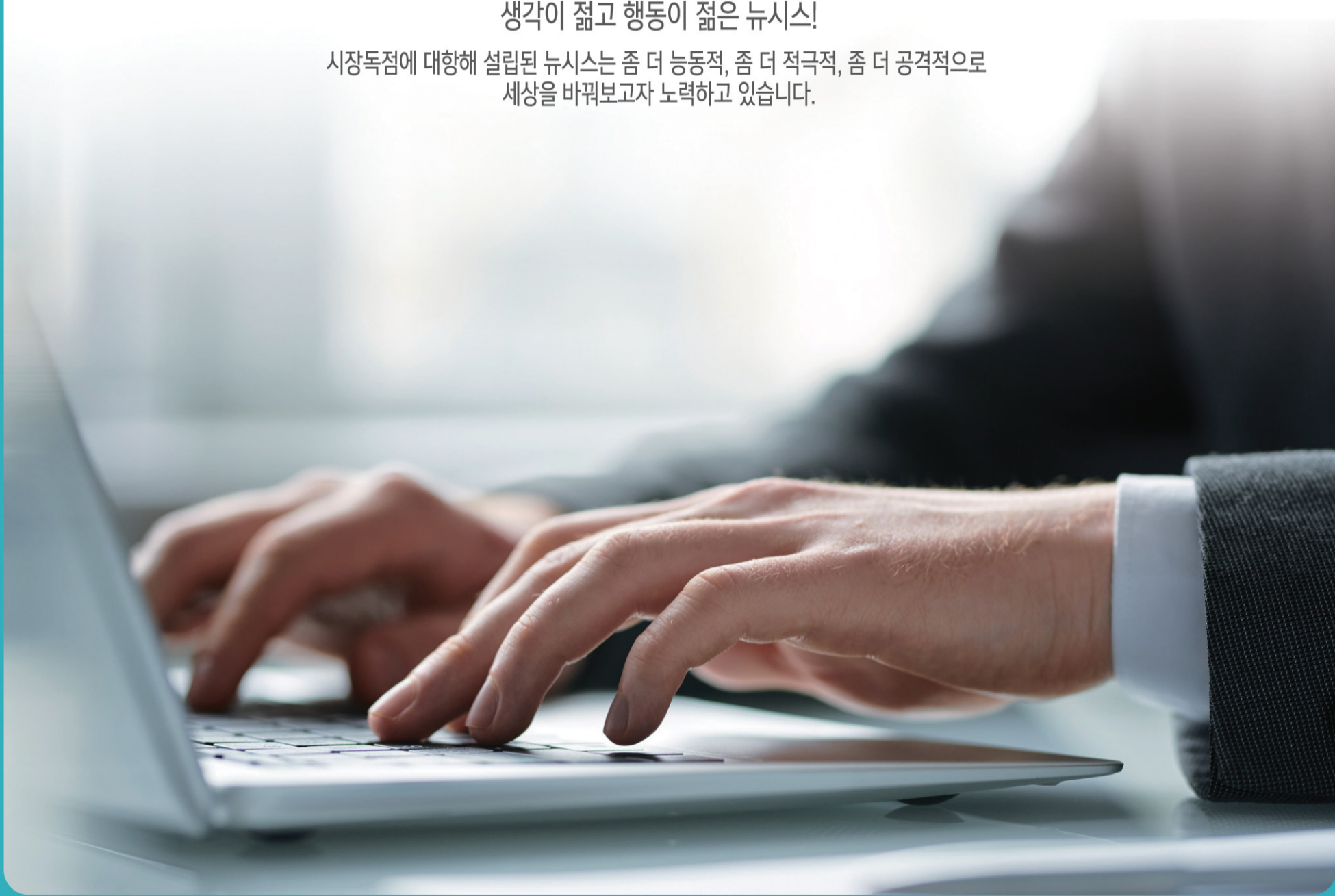


사진기사. 1500여개

뉴스یس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یس!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یس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빈틈 메운다... 방과후 확대하고 AI 진학상담 도입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발표
초3 이용권 연말 70%까지 확대
중학 글쓰기·논술 단계적 확대
취약층 영어·수학 화상 지원 늘려
대입정보포털 AI 상담 기능 신설
학원 불법 교습비 단속·제재 강화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받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올해 말까지 희망 지역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된다. 중학생 글쓰기·논술 수업은 늘리고,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영어·수학 지원도 확대한다. 대입정보포털에는 AI 진학상담도 새로 들어선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마련됐다.

◆ 초·중·고 돌봄·방과후 확대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스시스

교육부가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기준, 초등 3학년의 57.2%가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희망 지역에서 초등 3학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사실상 3시 학교'를 유지한다.

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 문해력·기초학력 강화
교육부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독서 기반 프로젝트·토

론 수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독서동아리 연계 글쓰기 지원은 2027년 500개교에서 2030년 3300개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초학력 관리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한다.

◆ 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
교육부는 대입정보포털 '아디가'에 인공지능 기반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한

다. 올해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기능과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을 도입하고, 2027년에는 학생부교과·수능 전형 중심의 개인 성적 기반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 강의 제한과 학원 교습 정지 등의 제재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414km 구축

482개 지역, 약 12만9천 세대 공급

경기도가 내년까지 도 전역에 총 414km 규모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광주시 은골마을, 의정부시 빼벌마을 등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482개 지역, 약 12만9천 세대가 새롭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취사천리를 비롯한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2026~2027) 공사계획'을 31일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도민의 보편적 에너지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총 1,247억 원을 투입해 광주시 은골마을 일원 등 306곳(약 5만8천 세대)에 211km의 배관을 우선 설치한다.

이어 내년에는 1,202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진접2지구 등 176곳(약 7만1천 세대)에 203km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세부 공사 계획은 각 시군청이나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업자 누리집, 경기도 누리집서 확인할 수 있다. 도민들은 거주 지역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향후 가스 공급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배관망 확충은 기반시설을 넘어 도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3.9%로 전국 도 단위 최고 수준이지만, 마지막 한 가구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형 키즈카페, 올해 30곳서 6개월간 운영

이달~6월·9~11월 주말마다 순회
한강공원·식물원 등 30곳 확대

지난해 아동 1만 9000여명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주말 특화형 야외 키즈카페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가 올해 운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개최 장소도 인기 명소 중심 30곳으로 확대해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가 올해는 4~6월, 9~11월 주말마다 운영된다. 운영 장소도 잠원, 여의도, 뚝섬한강공원 등 8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등 주요 녹지공원과 허준근린공원, 구의공원 등 근린공원을 포함해 총 30개소로 확대된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된다. 대형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 모험놀이터 조감도. /서울시

버블쇼, 가족 참여형 레크레이션, 물총싸움,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가족 모두가 뜻깊은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돌봄 양육자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마

련돼 아이들이 놀이기구와 체험활동을 즐기는 동안 휴식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울형키즈카페' 이용대상은 연 나이 기준 4~9세 아동으로, 1회 2시간씩 총 3회차로 운영된다. 이용료는 아동 1인당 5000원이며, 보호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 인원은 각 장소별 놀이공간 면적에 해당하는 정원별 사전예약 80%, 당일 현장접수 20%이다. 사전예약은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6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

마세추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테마별로 특색을 갖춘 이색 놀이기구와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놀이경험을 제공하고, 양육자들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7 | 해질 / 18:55

4월 2일 (木)
음력 : 2월 15일

수도권 날씨 **7~1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교원 민원부담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서울학교안전공제회, 특이민원 대응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맞춰 교원의 민원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전문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특이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쟁 위험도를 점검하고, 반복 제기나 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육활동보호전문가가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갈등이 심화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에서 분쟁 확산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학교 현장의 판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

트'도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민원 내용과 요구의 성격, 제기 방식과 표현 양상, 사안의 경과와 반복성, 외부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두 개 이상 기준에 해당하면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전문 대응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4월 1일자로 정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 속도와 분류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美 국무장관 "이란전 목표 조기 달성 중... 결승선 보여"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조기 종전' 시그널에 UAE... "호르무즈 뚫겠다" 배수진

▲미국인 66% "목표 달성 못해도 이란전 빨리 끝내야"
▲美 USTR, 韓디지털규제 '무역장벽' 지목... 산업부 "정부 의견서 전달"

▲러 외무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美 이란 침공으로 일시 중단"
▲대만 당국, 日구마모토 공장서 TSMC 3나노 생산 허가



도심·자연 속
봄꽃명소에서
커피 한 잔
니



Life

LG전자
협력사와
공정 혁신
L3



추억은 그대로, 진화는 쪽 매운맛 잡는 ‘음료 소방관’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동원F&B ‘쿨피스’

1980년 첫선을 보인 쿨피스는 단순한 유산균 음료를 넘어 시대의 식문화와 함께 진화해온 ‘메가히트 상품’이다.

해태유업에서 1980년부터 생산한 과일향 음료로 2006년도 동원F&B에 인수합병된 이후로는 동원F&B에서 생산·판매 중이다. 출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경쟁력은 분명하다. 저렴한 가격, 대중적인 맛,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춘 끊임없는 변신이다.

동원F&B의 쿨피스는 연평균 6500만개 이상 판매되며 꾸준한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 2018년 이후 매출은 연평균 3.7% 성장세를 유지했고, 최근에는 연간 판매량이 8000만개에 달할 정도로 외형도 확대됐다. 한때는 패키지와 맛을 모방한 유사 제품이 잇따라 등장했을 만큼 시장 영향력도 막강했다.

출시 당시 경쟁력은 ‘가격’이었다. 150ml 한 병 가격이 100원으로 콜라나 사이다보다 훨씬 저렴해 학생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유산균 음료임에도 비교적 보관이 용이해 냉장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소비가 가능했던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열려 먹는 ‘슬러시’ 형태 소비가 유행하며 1980~1990년대 학교 앞 풍경을 대표하는 음료로 자리 잡았다.

시장 지배력은 경쟁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1987년 10여 개 업체가 뛰어든 유산균 음료 경쟁 속에서도 쿨피스는 살아남아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장수 브랜드의 핵심은 변화다. 쿨피스 역시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2010년대 들어 복숭아, 파인애플, 자두 등 과일 라인업을 강화하며 제품 다양성을 확대했고, 2014년에는 유산균 음료에 탄산을 결합한 ‘쿨피스톡’을 선보이며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했다. 쿨피스에 탄산을 첨가한 제품으로 특유의 달콤한 맛은 물론 청량감이 살아 있다.

특히 연구개발(R&D)을 통해 냉장 유통에 의존하던 한



쿨피스는 1980~1990년대 슬러시 형태로 인기를 끌며 학교 앞 대표 간식으로 자리잡았다. /동원F&B



쿨피스는 매운맛과 궁합이 뛰어나 ‘매운음식=쿨피스’라는 공식을 만들어냈다.

계를 뛰어넘는 점도 의미가 크다. 쿨피스톡은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최대 1년까지 상온 보관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며 유통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2023년에는 제로칼로리 트렌드에 맞춰 ‘쿨피스톡 제로’로 재탄생하며 건강 지향 소비까지 흡수했다. 기존 쿨피스톡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과 칼로리를 낮춰 몸에 대한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다.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 성분이 들어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당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0’으로 설계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동원F&B는 최근 ‘쿨피스 생(生) 바나나’를 출시하며 15년 만에 새로운 맛을 선보였다. 바나나의 달콤함과 쿨피스

특유의 새콤함을 결합해 매운 음식과의 궁합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44시간 배양한 생 유산균을 담아 기능성까지 강화했다.

쿨피스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단연 ‘매운맛 궁합’이다. 떡볶이, 닭발, 마라탕 등 강한 매운맛 음식과 함께 소비되며 ‘매운 음식=쿨피스’라는 공식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외식업장에서는 쿨피스가 필수 사이드 메뉴로 자리 잡았다.

이 공식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다. K-푸드 열풍과 함께 한국식 매운맛이 확산되면서 쿨피스 역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중국, 미국, 태국 등 40여 개국으로 수출되며 ‘매운맛을 중화하는 K-음료’로 자리매김했다.

쿨피스는 합리적인 가격을 기반으로 출발해 지속적인 제품 혁신과 트렌드 반영을 통해 생명력을 이어왔고, 음식 문화와 결합하며 소비 접점을 넓혀왔다.

46년째 이어진 스테디셀러의 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끊임없는 변신과 시장 적응력을 바탕으로 쿨피스는 다시 한번 ‘장수 브랜드의 교과서’를 써 내려가고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익숙한 장수 브랜드에 새로운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이번 신제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대표 K-음료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식문화와 함께 성장한 유산균 음료
1980년 출시,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화
학교 앞 풍경 대표하던 ‘슬러시’ 음료

복숭아·파인애플 등 과일 라인업 강화
탄산 청량감 더한 ‘쿨피스톡’ 영역 확장
15년 만에 새로운 맛 ‘생바나나’ 출시

떡볶이·마라탕 등 매운맛과 찰떡궁합
40여개국 수출… 매운맛 잡는 ‘K-음료’



▲‘우승 후보’ 꿈꿨는데…개막 3경기 무승 LG·삼성 ‘불안한 출발’
▲프로야구 압표 15배 뺑뺑기 포착…문체부, 186건 경찰 수사 의뢰 /사진 뉴시스

▲홍명보호 월드컵 첫 상대는 체코…승부차기 끝 덴마크 제압
▲FIFA 회장 “이란, 예정대로 미국서 월드컵 경기 치를 것”

▲차세대 국악인 찾습니다…‘2026 신진국악실험무대’ 예술가 모집
▲국가유산청, 태권도·인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SAMSUNG

Galaxy S26 Ultra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세요